

자기 백성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각자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모든 크리스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9월 13일 (토) 제 150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500호 발간을 맞으며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외치고
복음의 횃불을 널리 비추는 신문으로!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는 신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을 읽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쳐들고 하루를 시작한다."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이 미주에서 기독교 신문을 출판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여 출간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오래 지속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이 최악된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식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기 위하여 발행된 신문이다.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의 사시를 걸고 30여년 동안 발간하여 매주 40여 개국으로 보급되는 동안 어느덧 15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보다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개최한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를 28회나 계속하게 되었다.

이는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그동안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위해 헌신한 신문사 직원들과 구독자들과 후원해주신 교회와 기고해주신 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령 1500호를 맞아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특집원고를 모았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과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사명)"으로 나눠 미주 한인교회가 바라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좋은 내용들을 써주셔서 본지 1500호를 빛내주신 필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각 글마다 독특한 논리들을 전개했으나 크게 본다면 현재 기독교에 대한 시각들은 거의 애통하는 마음들이었다. 그만큼 기독교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한국 교회(미주한인교회도 포함)의 잘못된 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공통된 점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성경적인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차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계승도 잊지 않았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과 자유의 교회, 목회가 되기를 소망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다. 특히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해 많은 방향을 제시해주셨다. 인터넷과 첨단미디어의 활성화로 인쇄매체의 어

려움도 언급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미디어 각각의 특색이 있음으로 그 특색을 심분 발휘하는 것이다.

모두 기독교인의 본래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리 수호에 매진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특별히 본지의 특성인 보수 정론의 특색을 살려 질 좋은 콘텐츠 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일관성 있는 성경적 해석과 논평을 게재하고 매체의 다양화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바라기는 독자들의 소망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문, 정직과 진실함으로 교회의 동역자로서의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외치고 복음의 횃불을 널리 비추는 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1500호 축하

성령의 능력 입으리라



송암(松巖)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담임
사성민원 이사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직전대표회장

전능자 능력 입고
심 없이 달려온 나날

1500호 징검다리 위
지난 날 희로애락의 추억들
주마등 되어 회고 속 감사의 꽃 피운다

물같이 흐르는 세월
물길도 변화되니

끝없는 변화, 새로움 추구
형클어진 실타래만큼 복잡한 세계

한 마리의 비둘기 되어
방주 향해 날다 비맞은 날개
무거워 구구국 울다

오대양 육대주의 디아스포라들
기다림 알아

다시 한번 전능자 능력입고
푸른 창공 연결하고
온 나라 복음으로 품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리라!



2면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행을 축하하며



3~12면

특 집
한국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18면

중국 인구감소 =
국력 저하 + 문명 약화



20면

"공공의 적" 이슬람국가(IS) 확대 저지!

지령 500호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정관일 목사 외 임원일동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행을 축하하며



수준 높은 신문... 정든 친구 기다리듯 기대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그동안 지령1500호를 끊임없이 발행해온 미주 크리스천신문 발행인(장영준 목사)을 비롯하여 편집진과 일선에서 취재하기 위해 수고한 기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린 직원들 그리고 여러 저명한 기고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문을 한 번 짚어내기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또 전 세계에 보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이를 꾸준히 감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주 서둘러서 신문을 빠짐없이 꼬박꼬박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든 친구를 기다리듯 신문이 배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보면 우선 전면에 실린 특집기사의 타이틀을 비롯하여

마지막 면까지 제목 전체를 훑어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사시(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에 따른 목적의식이 투철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다루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논조에 일관성이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시사성과 창의성이 살아 있고 내용이 매우 충실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줍니다. 무엇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교회와 독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으로 귀한 신문입니다. 앞으로도 신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교회 실패 사례도 소개하면 교훈될까...

최 기 채 목사 (동명교회 원로목사)

통지를 늦게 받고 답신이 늦었습니다. 미국 만리에 흩어져 있는 독자들에게 귀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신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대신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500호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째, 귀 신문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점은 1. 다양한 집필진을 확보하여 폭넓은 지식 전달이며 2. 사회면에서도 지구촌의 신속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3. 집필진의 노년층과 청년층을 다양하게 대응시켜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4. 특히 창조과학에 대한 논설을 연재하는 일이며 5. 세계적으로 최고령이신 방지일 목사님의 경험담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둘째,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점은 대교회 목회자의 성공담 뿐 아니라, 개혁교회를 받들다가 실패한 사례담도 게재하면 교훈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복음의 햇불 오대양육대주에 밝히는 등대로

최 창 섭 목사 (뉴욕 에베레셀교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를 모토로 시작된 정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 1500호를 맞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언론 매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주었고,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스스로를 개혁하여 새롭게 하는 일,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있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격려하는 일,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는 이 시대에 세계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우치는 일을 선봉에 서서 잘 감당해왔습니다.

어언 1500호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신문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 전 미주뿐만 아니라 해외 44개국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속되는 신문으로 그 지경이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햇불을 오대양 육대주에 널리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귀한 사역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하시는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이신 장영준 원로 목사님과 신문사 직원 분들, 그리고 신문을 위해 기도하고 변함없이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 드립니다.



사회정의와 복음의 감동 밝히는 햇불 되기를

김 항 안 목사 (한국교회 정보센터)

인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행하는 '인격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신문이 전하는 생생한 정보는 이 시대와 공동체에게 변화를 촉발점이 된다. 그래서 신문은 신문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부정의가 정의를 억압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종교계에도 때때로 같은 현상, 즉 비진리가 진리를 압도하는 오각(誤覺)상태가 나타난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왜곡 현상이 많이 있었다. 언론의 정도를 견지 못하는 사이버 신문이 사회 공동체에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간혹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미주 지역에 수많은 신문이 있지만, 특히 미주크리스천신문은 30여년 동안 1500호를 내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애써온

신문이다. 땅은 못 생명을 키우고, 바다는 세상의 모든 오염을 담아내어 정화시키며, 태양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비추어 어둠을 밝힌다.

최근 등장한 각종 미디어 매체 때문에 오프라인이라 부르는 미주 지역 기독교계통 종이신문은 그 운영이 매우 어렵다. 인쇄비와 발송비가 너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들을 성결케 한다는 믿음으로 계속 발행해 왔다고 믿는다. 미주크리스천신문처럼 신문이 신문다운 생명력을 가질 때 독자가 그 신문을 보고 춤을 춘다.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교포사회의 모든 악(惡)을 제거하여 선(善)을 키우며, 사건·사고들을 분석하고, 짚어내고, 다듬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세상의 길라잡이로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태양 같은 공정성으로 사회정의와 복음의 감동을 밝히는 햇불이 되기를 축원한다.

"불지여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나1:15).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문

박 재 호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연혁회 회장
남미복음신문 발행인
브라질 새소망교회

에베레셀 30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령 1500호를 기록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향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기독교 신문은 일반 신문보다 특별한 사명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문은 독자들의 바른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좋은 글을 올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과 행동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문은 독자들이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여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신문이란 어떤 면에서는 칼과 같은 것이다. 칼은 그것을 잡는 사람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가령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의료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J. 테일러"는 "펜은 아주 위험한 도구로서 칼보다 훨씬 날카로워 위 아주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신문은 선한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처럼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선한 목적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짐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회적 책임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다 말하고 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진상 보도다, 사람은 알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무엇이든 그대로 기사를 쓰고 보도하고 남의 사생활의 아무 것이나 들추어내고 폭로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옳은 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 참된 의로움이란 덕과 사랑과 의리(義理,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문은 좋은 소식(Good News), 좋은 글, 좋은 이야기를 담아 널리 전함으로써 교회와 국가 사회에 유익하고 모든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바른 신앙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천사도 돕모하는 귀한 일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사람이 땅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사업이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은 없다"라고 하였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고생이 많다. 마음 고생, 물질 고생, 몸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의 특권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그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 신문의 제일 되는 사명은 생명의 복음 전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문은 언제나 복음이 듬뿍 담겨져 있어야 하며, 사건 보도에도 사람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편벽되지 않고, 공정해야 하며,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은폐 조작하지 말며, 신속 정확을 기하되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언론에 종사하는 이들도 현대 민주 사회의 보장된 언론 자유 안에서 양심에 따라 보고 듣고 말하고 논평할 수 있으며,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수반한다는 건전한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여 무책임, 무분별, 무가치, 무익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 신문은 모름지기 정의사회 구현과 건전한 교회 성장 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며, 밝고 명랑한 사회, 상상이 통하고 진실과 선함과 의로움과 근면 성실이 인정을 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며 친환경, 자연보호와 기독교적 인성교육 진흥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문이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어느 개인이나 교회, 혹은 특별한 단체와 기관을 대변하게 될 때 언론의 순수성, 공정성, 공익성은 상실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문이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려면 가난과 고난, 온갖 핍박과 위협의 감수는 물론, 순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독교 신문의 사명과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이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신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먼 곳에서 오는 반가운 소식, 에 나모 끼야 바하!

김남수/이덕신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살고 지낸지 어언 30여년이 다가옵니다. 작열하는 태양 빛, 그 열기가 번져가는 적도아래 섬나라,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면서 이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곳에 도착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한 세대가 교체되어 두 딸 아이는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물이 들어와 누릴 수도 있는 도시의 삶과 인터넷이 아니라 전기도 없는 현진인 부족 마을에서의 삶, 확연하게 다른 곳을 오고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깥세상의 삶에 대한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의 삶,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라며 스스로 대답을 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도 없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쉽게 스스로를 위로 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1년 12개월의 반절이 넘는 기간을 인터넷도, 전화도 TV도, 아니 전기도 없는 곳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 도시에 나온다 해도, 비슷한 현

상이지요. 이런 저에게 '바깥세상'과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귀한 소식,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교회 뿐만 아니라 고국의 교계 소식, 그리고 세계의 정세, 특히 여러 지인들과의 만남-인터뷰의 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는 외롭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광고문장과 사진들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책들이 출판되고 있구나!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자주기고하시는 분들의 글과 사진을 볼 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즐거움 착각도 하게 되지요.

노오란 봉투의 반가운 소식, 남태평양을 건너 멀리서 오는 소식이지만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 이랍니다. 이 소식의 전달을 위해 땀과 사랑을 쏟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마음을 모두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namo kia baha!(에 나모 끼야 바하!),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파푸아뉴기니 와이마 부족어)

(원고도착순)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The Korean Christian Press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한국)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가는 방향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국가적 위기, 그리고 종교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위기란 타종교를...

열정적인 신앙으로 승화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급성장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계가 200년...

로 세계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 불황과 아직은 극소수라고 보지만 사이비 선교와 전지적 선교로 선교 본질의 퇴색이 선교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선교의 열정을 식게 하며, 게다가 사방팔방으로 기독교가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있으며, 내부적 갈등으로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끼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수가 전체에 비해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은 참고, 인내로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해야겠지만, 비난은 철저히 회개하고 재무장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앞날에 염려스러운 것은 급성장과 동시에 급하락을 가져오게 되지 아니할까 마음 조아리며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며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성장은

급하락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럽문화는 돌문화요, 구공산권문화는 철문화였고, 중앙권 특히 한국은 나무문화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정이 많은 반면 이성이 약했고, 나무의 특성이 변질이 쉽고,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성기도 거듭난 역사로 교회가 본이 되어 바꾸지 아니하면 유럽의 기독교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하락될 위험성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루속히 치료이전 예방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위기의 바람과 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을 주신 복음의 축복을 만세반석위에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 성장할 때 심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므로 전파위복이 되었고, 아시아가 선교중심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

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일심단결 해야 할 것은 교회를 파괴할 간교한 동양권 특히 한국은 나무문화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정이 많은 반면 이성이 약했고, 나무의 특성이 변질이 쉽고,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성기도 거듭난 역사로 교회가 본이 되어 바꾸지 아니하면 유럽의 기독교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하락될 위험성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루속히 치료이전 예방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위기의 바람과 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을 주신 복음의 축복을 만세반석위에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 성장할 때 심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므로 전파위복이 되었고, 아시아가 선교중심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

26:19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며, 27:1-30:20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그리고 31:1-34:12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중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최후의 교훈이 있습니다. 32:15에는 중요한 경고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론이 살찌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수론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성이요, 거짓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자의 본성입니다. 저들이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진노를 격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반복된 역사요, 기독교역사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무역도시, 상업도시, 경제가 풍부한 지역의 배부른 교회였다든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사모하며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래서 평안과 안정된 삶, 배부른 삶을 살게 될 때 또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

1.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이사야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나 소통이 불가능하고, 소통 없이 해결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요, 또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죄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교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사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회개는 정직한 영의 회복인 것입니다.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거듭나고 새사람을 입을 때, ①입술(말)의 진실 ②정직한 마음(양심) ③물질의 정직이 이루어집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소시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참조: 삼상29:6/왕상3:6/잠14:11, 15:8/전2:29/시15:12, 84:11/사33:15/욥4:7/잠28:6)

2. 사랑 회복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산업시대에서 IT문화로 탈바꿈하면서 대인관계는 콘크리트 문화처럼 되어가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사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웃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없는 교제는 올바른 친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속성이요, 약령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요, 악하고 더러우며 거짓이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줍니다. 이기주의의 사랑, 개인주의는 비극의 원인이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늘 날의 비극과 고통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딤후 3:1-5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 리더십이요, 희생 리더십이요, 십자가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의 동족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순신 장군 같은 애국 리더십, 희생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명량).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처음 사랑만 회복된다면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랑 회복 없이 본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 본질 회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영혼 사랑 없는 전도, 선교는 본질에서 떠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섬김이나, 배려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사랑 회복은 모든 회복의 핵심이요 십자가 정신 회복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16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 호소하며 한 알의 떨어지는 밀알 되어 회개 먼저, 사랑과 믿음열정 회복하고 차세대 영성교육에 투자

개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경고하시다가 깨닫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부득불 강대국을 들어 치시고 흉년을 만나게 해서 저들이 고통과 신음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지경도록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다른 혹독한 민족적 고난이 필박 속에서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확산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극성스러운 열정적 기도와 전도가 계속되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을 내리심으로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론이 배부름 때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자급에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과 처음의 순수하고도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퇴색되고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나 생각하며 열려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방이 치료보다 지혜롭다는 원리를 재차 언급하면서 선지자적인 시각과 말씀의 선포, 정직 회복, 사랑 회복, 믿음 회복, 사명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패스(Sociopath)는 결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은 평범하지만 속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이중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에 대하여 노후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무능한 종교는 위선이 판을 치게 됩니다. 신앙과 인격의 핵심이 치는 정직한 영이 회복될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각성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되, 인격의 부족이나 몰상식으로 비난받는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행2:47).

여론(소문)이 나쁘면 전도의 문을 막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의 문제 80-90%가 부정직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거룩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시25:8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33: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KCCA)

1645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대표 회장 한기홍 목사

기독교의 미래, 나아가는 방향

성경과 기도만이 해답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종교개혁 후 근 500년을 지속해 온 유럽교회는 거의 무너졌다. 지난 100여년간 세계 선교를 주도해 온 미국 교회도 주요 교단들이 하향세를 그리고 소수의 노인 분들이 남아 예배당을 지키는 교회들이 무수히 늘어가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부흥을 거듭해왔던 한국 교회도 지난 10여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고 있다. 청소년과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는 싸움을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천주교회가 아니다

세상과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천주교회를 지목한다. 천주교회를 답으로 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에 그런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며 오류이다.

두 가지만 살펴도 든다면, 첫째 지난 8월 1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있었다.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삶이 전세계인의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다. 공황에 내리자마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언론의 집중적인 칭찬을 받고, 광화문에서 열린 미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다. 가는 곳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프란치스코 교황 환영가가 작곡되고, 교황 기념 사진전이 열리고, 교황 관련 서적 40여종이 출판되고, 기념주화와 기념우표와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선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온 세상이 교황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주목하고 칭송하는 현상에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들리리조차도 서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밀려나셨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교황은 착한

(?) 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모여 사람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뿐 예수님과와는 아무 상관없는 집회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천주교회는 10년간 219만 명이 늘어 514만 명으로 74% 증가한 반면, 교회는 14만 명이 줄어 861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증가세에 있던 교회에게는 너무 충

고 몰으시는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답했던 베드로처럼(요6:67-68), 밀어내고 압박을 해도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또 다시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천주교회로 이동할 것 같아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천주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 교회의 머리아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려 사람인 교황을 우상화하는 것은 천주교회가 오래 전부터 세속화, 제도화, 종교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개혁된 교회’가 그것을 부러워하며 세속화, 제도화, 종교화, 우상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무기를 들지 말라

그렇지만 이 전쟁을 치르며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

혼이 더욱 강해지지만, 우리가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우면 싸울수록 침체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강력한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선언했던 사도들은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행 6:4). 기도와 말씀 선포, 이 두 무기가 바로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잃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무기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무기로 영적 싸움을 싸우자(엡6:17-19, 행4:23-31).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세속적인 무기, 곧 건물, 프로그램, 행사에 결코 의지하지 말자. 유혹에 빠지지 말자. 성경과 기도는 이 두 가지 무기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놀이 문화를 도입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까 두려워 서서 성경을 집중하여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보다,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진리를 교회 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줄 수 있는 흥미에 교회가 매달린다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흥미를 얻으면, 그들이 세상을 향하지 왜 교회로 오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수천명 모이는가? 어떻게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가? 스포츠 경기 등과 흥미를 놓고 경쟁을 하여, 떠나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다. 어린이, 청년, 장년들에게 선포되는 설교에 ‘십자가의 도’가 빠져 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성경의 진리를, 곧 죄, 회개, 심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외면하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도덕적 교훈, 지식과 정보, 감동과 재미를 주는 ‘가벼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확신 있게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를 자각하는 것,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잊지 말자.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집중하여 가르치자. 그들이 신앙을 등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둘째, 기도로 승부하자.

이 영적 전쟁, 우주적인 전쟁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최후의 심판 날에 끝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천년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보하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거두어진 그 승리는 셋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눅22:39-44).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기도로 승부해야 한다.

(16면으로 계속)

‘개혁된 교회’가 세속화, 제도화, 종교화, 우상화 따라가는 것이 문제 예배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십자가 의미 깨달으면 떠나지 않아

개혁된 교회가 그것을 부러워하며 세속화, 제도화, 종교화, 우상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개혁된 교회’가 그것을 부러워하며 세속화, 제도화, 종교화, 우상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전쟁 중이다

전세계가 증오, 폭력, 총돌, 분열,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여들의 나라’의 충돌이다(계12:7-17).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과

적 전쟁을 건물, 시설, 프로그램, 돈으로 승부하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 간에 건물 짓고 버스 사는 경쟁을 하다가, 그 후에는 너도나도 수양관, 기도원을 짓다가, 이제는 교회들마다 카페, 공부방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외에 다른 무기로는 우리보다 백만배 더 강한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적 감응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황을 하며 천주교회로, 세상으로, 이단 단체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뉴욕노회 노회장 손한권 목사 외 임원일동

(한국)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민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



여 승 훈 목사 (시카고가나안장로교회)

지난 2008년도에 발생했던 허리케인 아이크를 필자는 텍사스 휴스턴에 살면서 직접 경험을 하였다. 순식간에 모든 전기 파워가 끊어지면서 여러 날을 전기와 물 공급 없이 지내는 불편함을 겪었다. 당시 필자가 섬겼던 교회에는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교회 건물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한 거센 바람이 강타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쓰러졌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탓에 모두들 놀라워했다.

현대 기독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기독교의 뿌리들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아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 관련 문제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를 수용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목회자와 동성애 커플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독교내 단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매우 위협한 도전이다. 이 대목에서 현대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진 영국교회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고등비평으로 인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결과로 영국교회의 부흥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마치 겨울나무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듯이 텅 빈 건물만 남아 있는 형편이다.

현대 교회의 무너진 현장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기는 고사하고 너무나 당연시 하는 풍토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시시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다시 시작해야 할 지점은 바로 권위에 대한 재인식이다.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시

작은 권위에 대한 불경건한 인식에 기인한다. 탈선하는 리더십의 문제도, 리더십에 대항하는 회중들의 문제도, 결국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회복이 무너져가는 현대 기독교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위에 대한 경건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특히 미국내 이민

한국 교회에 대한 탄식 소리와 우려의 소리들이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필자는 이민 교회를 부교역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21년을 섬겨 오면서 나름 느낀 것은 이민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우려스런 모습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갈등과 분열로 인한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전가가 되어서 너무나 많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권위에 대한 구체적 모습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본다.

약 10여년 전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필자의 설교 CD를 즐겨 들곤 하였었다. 필자를 만날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연설이 참 좋던데요”라는 것이었다. 주의값게 새겨들지 않으면 기본 좋은 소리일수 있지만 가만히 새겨들으면 굉장히 맥 빠지는 말이다. 그 이유는 설교자의 설교가 기껏 강단에 올라가 연설을 하는 일반 연설자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딜레마 때문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설교자의 설교가 연설자의 연설 수준이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이민교회 신자들의 경향을 보면 많은 경우 설교자의 설교를 마치 연설자의 연설 정도로 취급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한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크리스천 지성인의 칼럼 제목이 매우 흥미로웠다. 제목은 “한국 기독교 동네 개가 되었네”였다. 현재 한국 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은 2세대들이 1세 부모들의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까? 무엇부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 보면 가닥을 잡을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매우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라. 수천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는 사실도 중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 자복하였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권위에 의하여 완전히 압도당하여 나오는 반응들이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런 압도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하였을까? 이 질문은 위기에 처한 이민 교회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사 시대를 일컬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암흑

의 시기라고 일컫는다. 왜 그랬을까? 성경 사사기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발견된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란 가나안 정복시대 이후의 세대를 말한다. 즉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말은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권위를 놓쳐버린 결과 사사시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않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윤리적인 면만 배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복음의 메시지가 두리뭉실하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놓쳤다는 것이다.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설교자가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권위를 찾을 때 회중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빠르게 섬기게 될 것이다. 기독교 메시지는 인간의 삶과 윤리 도덕을 포함하여 전한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일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진술했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예수님)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라”(요5:39). 성경이 증거 하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좋은

홍내내나라 새롭게 발전하고 새롭게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분명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로 다시 돌아간단 말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 하시는 성경의 목표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부흥을 주도하였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16,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길 아닌가? 18세기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걸어갔던 길 아닌가? 이들의 공통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 교회는 정체 혹은 쇠퇴하는 분위기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세대들을 돌아보라. 교회를 이탈하여 있는 2세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한다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원래의 자리 바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가리키는 바로 그 자리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상찬한 이민 교회를 치유할 수 있고, 부패한 신앙을 정화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다시 붙잡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교회 회복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다시 붙잡는 것 복음은 상식과 한계를 뛰어 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보라. “그들이 그 사사도 청중처럼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삿 2:17). 사사시대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는 사사를 청중 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암흑기를 견게 되었던 배경이다.

무엇이 사사시대의 그런 암흑기를 만들었는지를 오늘날 이민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그 권위를 놓쳐버린 것인가? 필자는 설교자의 강단이라고 본다.

회중들의 신앙의 많은 부분은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메시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달라스 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Matt Chandler 목사는 이탈 교인의 발생 배경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두리뭉실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기독교 메시지의 목표가 된다면 교훈과 윤리 그 이상의 메시지는 좋지 못할 것이다. 교훈과 윤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

세상이 어려워질 때 세상의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새롭게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500호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뉴저지 노회장 조문선 목사 외 임원일동



한국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백문일답, 오직 예수!



은희곤 목사 (뉴욕 침사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1500번의 신문을 발행하는 내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과 팔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해 오신 발행인 장영춘 목사님과 편집국장 유원정 선생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주님의 발이 되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갈급해 하는 곳에 단비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쉬임 없이 사역을 감당해주시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틀 안에서 원고정착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가나 신학자나 부흥사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그러나 지역교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는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저 나름대로 한 지역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평소 마음 가졌던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

요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다 난리입니다. 교회 재정 사고, 논문표절, 성적 희롱과 스캔들, 교회의 분규,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자살,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균열, 세상 범정에 나간 교회 사건들에 대한 판결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잡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언론을 통하여 사회에 전해집니다. 그것을 듣는 크리스천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면서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으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 끊임없는 교회의 개혁을

눈에 보이고 모두가 느낄 수 있게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다짐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크리스천들은 기회가 이따다 싶어 “개독교”라고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Sign Church(표지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를 묻게 됩니다. 저는 얽힌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 더 엉키기만 하는 한국기독교, 한국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아주 분명

유와 선교)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문화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 그리고 거꾸로 교회들이 너무나 다양한 문화들에 일정부분 무분별하게 동화되고 세속화 아래 복음,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여 점령당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를 대하는 교회의 분열도 그 한 예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첫은혜를 즉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여서(Together, Ecclesia) 설교에, 성경공부에, 기도, 찬양에, 복음적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치유받고, 치유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어 하나님 나라

서적 신앙과 성서적 교회로의 본질 강화와 형상의 회복”으로 길 잡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하여 믿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자기가 만든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고 방자하여 자기 스스로를 믿는 신앙(잠14:16)이라는 우상을 철저히 과감하게 말씀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깨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필자는 섬기는 교회에서는 성서적 신앙과 교회로의 본질적 강화가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 합일을 이루는 열린 관계, 성도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건 강한 신앙으로 소통하는 열린 관계가 형성되며 동시에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파트너로서의 교회와 교회와의 열린 관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도구로 쓰여지는 교회와 사회와의 열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열린 관계가 열린 교회 사역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2. 대안으로서의 열린 행정, 열

성경적 본질 강화와 하나님 형상 회복에 주력

열린 행정, 열린 목회 통한 열린 교회가 대안

“상호 신뢰 회복”으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 이뤄

하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교회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목말

1. 성서적 신앙과 성서적 교회로의 본질 강화와 형상 회복에 주력해야
-흥미와 관심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시고 우리들이 지체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아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자리는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생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케리그마(설교), 디다케(교육), 코이노니아(교제), 디아코니아(치

를 넓혀 가는 일(Disperse, Diaspora)이 교회의 구조요 전부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철저하게 성서적 신앙으로, 더 분명하게 성서적 교회로 가는 길을 순례의 여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학의 조류와 학문들이 “성서적 신앙의 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Need)에 의해 개발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성서적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주객이 전도되어 표류하고 맙니다. 흥미와 관심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신학 학문의 조류들과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과 방법론에 흥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철저히 “성

린 목회를 통한 열린 교회

저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감춤”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는커녕 교회 내부에서조차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담임목사와 몇몇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만 의논된다는 것은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시험 듣거나 실족하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인가?를 함께 펼쳐놓고, 고민하며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찾아 구성원이 된 성도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재정도 모두 다 공개되어야 함

니다. 정말 교회가, 담임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교회와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정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떳떳하게 밝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밀실입니다. 밀실에서 담임목사와 몇몇 지도자들이 논의와 집행과 결과를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두 다 오픈해야 합니다.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일입니다. 매달마다 월 1회 장로들이 함께하는 기획위원회, 분기별로 3개월마다 1번씩 집사, 권사 장로가 다함께 하는 임원회, 18세 이상의 임교인이 참석하는 년 1회의 당회(교인총회), 예산과 교회 재산을 다루는 년 1회의 권사 장로가 참여하는 구역회 등등이 교회에 속한 교단이 정한 정규회의입니다. 우리교회는 이 규정된 회의를 모두 지키며, 회의가 마치자마자 전체 회의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에 열린 행정이라는 부분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각 회의마다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개월에 1번씩 임원회시 재무부에서는 지사 이상 모든 임원들에게 교회재정 현황을 나눠주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100여장 프린트해서 교회 본당

저가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보다는 오히려 자기교회 부패리기에 전념합니다. 들어오게 하는 데만 주력하고 나가지는 못하는 대표적인 여행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흔적 남기기, 모양내기,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해 인적, 물적 재원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과 예산”의 몇 프로를 사용합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와 구제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결을 더 나아가 교회가 서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다녀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리며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그 안에서 잔치를 벌여도 그 교회는 병든 교회요,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특히 이민교회는 한인사회와 지역 사회에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단체, 선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마땅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한인이민사회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반 단체들, 즉 청소년이나 노인들이나 가정 관련센터, 장학사업, 봉사사업 등등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인이민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한인교회가 함께 어깨동무해야 합니다. 당면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와 지역교회가 열린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만 깨끗하면 안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라는 연못물이 함께 깨끗해야 나도 삽니다. 내가 속한 교회만 깨끗하면 안됩니다. 내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라는 연못물도 함께 깨끗해야 교회도 삽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연못물이 썩으면 그 안에서는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개인성화”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인성화를 넘어서서 개인성화가 사회성화를 위해 건강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한 예로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기존 선교와 구제 외에 기독교 단체가 아닌 한인이민사회 단체에 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나누는 것을 시작했으며, 지역사회의 다민족들을 초청하여 다문화를 함께 나누는 일 등등을 8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주 한인 퀸즈 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www.kapcq.org 교회전화 718. 886. 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담임 김성국 목사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미래목회 계언 (1)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전 남 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현대교회와 가장 유사하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교회였다. 좋은 말로 타일러서는 안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이다. 바울도 오죽했으면 “나를 본 받으라”(고전11:1)라고 했을까! 그리스도의 본은 흠이 없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아는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온전치 못하므로 자행(自行)하는 저들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교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이 본받아야 할 본(根本)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본보기로서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말을 다 동원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치유하는 메시지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교회의 현상에 갇힌 현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의도는 오직 한가지이다. 본질(本質-essence)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잃고, 진리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음을 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본질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본질이 없으면 맛을 잃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마치 개가 짖는 것과 같다. 설교 중에 십자가가 빠졌다. 보혈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강설(講說)에 불과한 것이다.

고린도교회의 모습 속에서 본질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현대교회와 종말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했는데, 사랑의 본질은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고 서로 위하는 것인데, 저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당을 지어 모였던 것이다. “순결하라”라고 했더니,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야 할 정도로 왜곡했다. “은사를 잘 활용하라”라고 했더니, 은사의 중심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 못하면 년 거둔다지도 않았다고 정죄했다. 성만찬을 하라고 했더니 아예 취해 버리는 모습이었던. 그래서 ‘잔치집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복받는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기복적인 말,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교회를 가지 않고도 사이버처치 같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 제물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꼭 몸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제물이 없이 예배가 되는가?

정한시간과 정한장소에서 산제물(Living Sacrifice)된 몸을 드러내 예배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취해 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한 시간 장소에서 산제물된 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 ‘보는’ 예배가 아닌 형식과 질서 회복하는 ‘드리는’ 예배 돼야

술을 마시느냐?’라고 할 정도였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교회같은 현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한민교회의 본질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건을 기술하고자 한다.

I. 교회 제일주의 신앙의 회복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 열려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현상들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교회가 비어가는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중심으로 교회의 사역과 삶의 일들을 재편해야 한다. 교회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런 곳이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인생의 삶은 복되고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하면

영적 금치산자같이 생활하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된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는 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몸이 오지 않고서 영으로서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교회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율법적이며 교회주의자 같은 얘기라고 비판한다면, 알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마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칼빈의 말처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저 찾아가서 안기지만 하면 어머니 품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람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지고 좋은 것을 넘치게 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II.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의 회복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많은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배가 자신이 산제물로 드러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소수의 설교자와 찬양대 등 앞선 이들을 바라보는 보는 예배가 되어질 때, 결국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보는 예배’는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예배를 전락시킨다. 설교자와 소수의 인도자를 보면서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설교를 중심한 예배를 잘하고 못함을 평가하는 흠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마치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듯이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호불호를 따라서 자기 기준에 합당한 설교목사를 발달문명의 기계 속에 세워두고 생명 같은 예배를 스스로 망치는 것을 보게 된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 없이 스마트폰이나 아이

패드 등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기계에서 세상의 음란과 저급한 세상문화가 함께 쏟아져 나온다. 또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설교자의 여러 앰을 띄워 놓고 입맛에 맞게 설교자를 선택한다. ‘친정 목사님,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상담목사님, 담임목사님...’ 등 대부분 서너 명의 담임목사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설교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 결국, 자신의 영혼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III. 예배의 형식과 질서의 회복

참된 예배에는 사람의 편리를 따르지 않는 질서와 형식이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대가운데 질서와 형식을 말하면 율법주의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편지가운데, 예배의 형식으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마라. 여자는 써라”라고 하면서 서로 남녀의 다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음을 본다. 남녀가 서로 구별이 될 때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기 때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때 는 갖추어야 될 형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올 때,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 등등.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과 더불어 상실되어가는 분명한 형태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가 너무나 인간의 형편을 따라 너무 멀리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본다.

말씀만 듣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문명의 기계 말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옷은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은가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제물입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줄지 마셔야 합니다. 줄리면 뒤에 서서서라도 예배를 성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잔소리(?)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정만큼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는 분명한 형식과 질서를 따라 드려야 한다. 특별히 주일에 배만은 우리의 유전대로 하자는 것이다. 개혁과 변화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준이 있을 때, 변화와 적용의 원리도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가 일반 강연이나 치유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룩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참된 마음은 ‘말/행위/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숙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되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속사람의 온전함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도 상호간에 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의함이 덕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

문이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영광, 남자는 남자로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서로 보완되는 성질의 관계로서 그런 가운데 남녀는 더 동등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속살을 보이지 마라. 배꼽보이는 옷 입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너무 짧은 치마 입지마라. 머리칼에 물감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등등’의 말씀들을 꽤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 한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500호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제일장로교회

PRIMERA IGLESIA EVANGELICA COREANA PRESBITERIANA

www.cheilch.org

교회주소

Carabobo 1253 CAP. FED. Buenos Aires-Argentina
TEL.(5411)4631-1788/0636, FAX.(5411)4632-6919
E-mail: iglesiacheil@hotmail.com

수영관주소

Camino General Belgrano 8736 Berazategui,
Buenos Aires, Argentina / TEL. (5411)02229-441215

- 표 어 -

1.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딤후 4: 1)
2. 성령충만으로 선교하는 교회(행 10:38)
3. 주를 위해 옥람을 깨는 교회(요 12:3)

담임 최 광 언 목사

한국교회의 미래와 기독교 저널리즘



김 상 모 목사(UMC은퇴)

서론 : 말씀과 기독교 저널리즘의 신비

기독교 저널리즘은 하나님 말씀의 창조론에 언론의 근거를 둔다. 이것이 기독교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다. 말씀이 존재보다 앞선다는 것이 기독교 저널리즘의 특성이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In the beginning the Word already existe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John1:1 NLT창1장: 요1:1).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생성의 근원이다. 말씀은 존재의 진위를 가리는 추(a pendulum of The Word)요 기독교 언론의 핵이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자체시요 곧 하나님임을 보도한다(요1:1-14).

기독교언론의 대가자 요한은 기독교저널리즘의 영웅이다. 그는 태초 이전에 존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논리 있게 반포한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말씀의 성육신' 사건의 증거를 내세운다(요1:14). 그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의지요 구원의 도리임을 밝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사실을 포호(咆虎)한 세례요한의 사건과 참사를 적나라하게 알린 기독교 언론의 대표적 저널리스트이다. 성경의 많은 저널리스트 가운데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말씀으로 이어준 훌륭한 저널리스트다.

기독교저널리즘은 항상 말씀위에서 교계와 사회를 살피고 바로고 공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가 기독교 저널리스트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요1:1). 얼마나 명쾌한 보도인가. '말씀'은 세상만사의 핵이다. 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알린다. 성경의 저널리스트들은 이와 같이 땅과 하늘의

비밀을 명석하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보다 밝은 데로 인도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 저널리스트들의 사명이다.

1. 언어 소통으로서의 기독교 저널리즘

독일의 절대권력자 프리드리히 2세는 갓난 어린이들로 잔인한 임상실험을 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말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요 축복이다. 따뜻한 마음의 언어가 아기들의 생명과 성장에 꼭 필수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이다.

2. 공익언어로서의 기독교 저널리즘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회의 회장직을 맡은 바 있는 페르디넨트 토에니스(Ferdinand Toennies)는 키

갓난아이들을 모아 놓고 그 아기들의 생리적 욕구만 충족시켜 주되 일일 말을 걸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아기가 울어도 안아주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그 아기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 모두 사망해 버리더라는 것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소통 없이 아기가 젖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소통 즉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communiation)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인간과 소통한다. 얼마나 생동적으로 감사한 일인가.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어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정확히 현대인들의 영혼 깊숙이 심어주어야 한다. 말씀의 씨가 자라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한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생득적(生得的)으로 언어지는 삶의 힘이지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프리드리히 2세의 잔인한 임상실험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어는 사

람을 살리고 공을 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라는 논문으로 교수자격을 얻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공동사회(Gemeinschaft)는 사회구성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익 사회(Gesellschaft)는 선택 의지라고 했다. 공동사회는 혈연적인 사랑의 관계와 공동운명으로 결속된 씨족 및 가족사회요 이익사회는 각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회구체이다. 이익사회는 이익의 목적이 없으면 언제나 각기 떠나가는 사회다. 토에니스의 사상은 언어의 구성체에서 동일한 모형을 보여 준다. 급변하는 현대사회(rapid changing society)는 공동사회에서 점점 이익사회로 변천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 씨족의 언어가 이익언어로 변질해 갈 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시든다.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는 인간을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과 가족의 개념이 흐려졌다. 사회 변천은 교회와 기독교저널리즘의 사명을 막중하게 한다. 기독교저널은 인간이 물질의 도구가 되는 것을 주시(herald)하고 생산의 로버트가 되

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예언적(forerunner) 역할을 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당대의 저널리스트였다. 구약과 시약의 메신저(Messenger)들이 곧 예언자요 저널리스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메신저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 기독교저널리즘과 교회의 미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The Word was with God)은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전달의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와 현재를 분별할 수 없는 순간이 연속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세전부터 순간순간으로 존재한다. 만물이 말씀(창1:3)으로 거대한 우주가 생겨났다. 창조론을 부인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주만물은 '말씀'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말씀을 희석(稀釋, dilution)해서 전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교회가 명에 지식 권력과 직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독교저널은 선구적 회초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노정(路程)을 개척하는 선구자적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입에 재갈을 채우는 사회는 쇠한이다. 언론은 한 사회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인간 사망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은 암이나 심장병으로 사망했어도 '죽었다'(die, death)라 하지 않고 '호흡이 멈추었다', '숨을 들며 마시지 않는다'의 뜻으로 'expire'라고 한다. 얼마나 정확한 성서적 언어인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의사의 정확한 환자의 사망진단서는 숨을 내쉬고는 더 이상 숨을 들며 쉬지 않는다는 표현 '엑스파이어'가 정답이다.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은 죽어간다. 생존의 의미는 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말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배필로 만들어 주신 여자의 뱀처럼 뱀을 보고 감탄하여 말한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니 그

게 만든다. 하나님의 생기가 끊기지 않도록 기독교저널은 생기가 넘치는 기사로 때로는 질책함으로 말씀의 소리가 되기를 바란다.

결론

기독교저널리즘의 특성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창조주의 생득성(nativism)을 갖는다. 기독교언론은 절대적인 말씀의 네이티브즘에서 출발해야 참 복음의 언론이 된다. 기독교언론이 창조론의 네이티브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일반 사회언론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창세기 1장에 열 번이나 나온다. 기독교저널리즘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해야 한다.

성경의 저널리스트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속화 신앙을 타파하고 오직 말씀의 저널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오직 말씀의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기독교저널리즘의 사명이다. 본지 1500호를 맞이하여 더욱 밝고 당당한 하나님의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기대한다.

한국교회는 말씀의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므로 미래가 밝다. 일본의 학정속에서도 교회는 3.1운동의 봉화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교회 말살정책과 6.25 한국전쟁에서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 한국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의 은근과 끈기로 열기를 잊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요 희망이다.

참 복음의 기독교언론은 절대적인 말씀의 네이티브즘에서 출발 정직과 진실, 하나님 공의와 사랑 선포하는 교회 동역자 돼야

님의 사랑과 긍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의 미래는 밝다. 믿음의 교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설교가 좋고 시설이 좋아도 기도의 불기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쇠해진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온다.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한다. 성령의 불꽃 속에 있을 때 다니엘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체험은 지금(至今)까지에서 바로 이순간의 지금(只今)의 역사로 체험된다. 현대의 특징은 지금(只今, now) 뿐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기독교저널리즘은 '지금(至今)까지와 지금(只今)으로 그 사명을 다할 때 성화(聖化)의 삶이 살아난다. 기독교저널리즘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데 일익(help)을 감당해야 한다. 좋은 논설과 메시지가 다양하게 기재되는 저널은 사회의 보화다.

뉴스와 함께하는 논설은 명품이다.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의 지경을 넓히는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필요하다. 교회가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데 기독교신문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고 올곧은 신문은 교계의 다이아몬드다. 기

얼마나 아름다울 고. 아담은 너무나 황홀하고 감탄한다. 그의 말은 인류 최초의 언어요 아름다운 시한수다. 문학의 효시(嚆矢, beginning)가 되었다. 아담의 언어는 인류최초의 기쁨이요 감탄이요 하나님과의 첫 소통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어는 사람을 감격케 한다. 가정을 살리는 기독교 저널리즘은 교회의 힘이 되고 벗이 된다. 가정과 사회를 풍요 하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담임목사 박재호 목사

남미복음신문

Nammi Christian Journal

발행인 박재호 목사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체성과 향후 30년 전망



박 동 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우선 지령 1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본 신문의 20년 독자로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북미주를 비롯한 선교지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목회자들 및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섬길 때에도 한 달이나 걸려서 매주 도착하는 신문을 받아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읽은 후 항상 동료 선교사들에게 돌려가며 읽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현지 형편 때문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은 한국 및 북미지역 교계 소식에 관해서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었던 같습니다.

한국에서 발간된 기독교 신문들도 지령 1500호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전역과 캐나다와 하와이, 알래스카에서부터 멕시코와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이민 교회들을 아우르며 30여년의 긴 세월을 마치 등대와 같이 비추어준 미주크리스천신문에게 따뜻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진짜 칭찬과 상급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애독자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특히 기독교 언론의 문외한이지만 나름대로 살펴본 몇 가지 특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가.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성찰

1.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건강한 보수 정론

기독교계 언론 중에서도 신문은 교단이나 교파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교단지로 방향을 잡게 되면, 특정 교단의 신학이나 견해 등을 대변하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구독자는 한정되고 신문 자체의 독자적인 정체성은 희석된 채

교단 직영의 자매지로 전락되어서 결국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주크리스천신문은 개혁주의 신학의 성향이 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복음주의를 대변하는 논조를 펴옴으로써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폐쇄적 보수가 아닌 건강한 포용적 보수 정론의 모습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발행인인 장영춘 목사의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의 합동이나 미국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와 같은

내 주요 기독교 언론 매체와 여론 조사 등을 발췌하거나 인용 번역하여 시대적 상황이나 변화 등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한 한인 선교사가 2만 명을 넘는 지금, 조국의 교회와 이민 교회, 선교지를 연결시켜주는 가교로서의 기독교 언론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쇄된 신문과 인터넷, 위성 TV 등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보수 장로 교단의 목회자이지만, 합동과 통합, 고신과 합신, 개혁과 백석 등의 다양한 교단적 관계 외에도 한국의 총회신학교와 아세아 연합신학교, 미국의 동부개혁신학교 같은 다양한 신학교 운영에도 관여한 경험 등이 결국 폭넓은 목회와 언론 사역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자연히 다양한 미국 장로 교단을 비롯, 감리교단, 침례교단, 오순절 및 순복음교단, 성결교단 등과 특수 선교단체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계의 소식을 다루며 다양한 필진을 통해 한인 이민교회를 진단하며 바르게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봅니다.

2. 한국과 미주, 전 세계 선교지의 가교 역할

북미주 교계의 소식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한국 교계의 중요한 동향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들과 선교지 소식을 항상 잘 안내하는 세심한 편집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감안해서 모바일 콘텐츠와 태블릿 전용 콘텐츠, 인터넷 방송 등을 선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익한 목회 정보 및 자료 제공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예배와 설교,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소그룹과 쉐샤역, 주일학교와 공회사역, 단기선교와 치유상담 등, 목회 사역의 다양하고도 중요한 내용과 방법들을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와 지도자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면의 한계와 주간으로 발간하는 신문의 특성상 더 심도있게 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양한 사역의 주제들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언론사들이 인력과 예산의 절대적 부족, 낙후된 설비 등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신앙적인 사명감과 책임감

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1500호를 발간해오며 보여준 변함없는 성실함과 꾸준한 발전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나. 향후 30년 혹은 3000호 발간을 위한 제언

1. 과거는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십시오

이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기독교 언론 사역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의 하프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500호의 여정을 정확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솔직한 성찰과 냉정한 평가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참된 꿈과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프타임에는 지친 몸과 마음도 쉬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함은 피곤함을 낳고, 피곤함은 나태함과 퇴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비상을 위한 재충전과 쉼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자기비판과 반성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상처와 병을 치유 받으려면

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과거 기독교 언론만 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 매체들을 보면, 타 언론사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든지 시대적 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하면 떠오르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타 언론 매체와 차별화되는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사건이나 교계의 문제에도 일관성 있는 성경적인 해석과 논평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목회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영적인 해석과 처방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과 양보가 없어도, 상황적이고 시대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포용과 이해의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는 침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목과 대립이 있는 곳에 대화와 수용의 중재자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와

교회가 맡겨주신 성도들과 구원받을 양들을 찾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기독교 신문은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으로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유주의자들과 이단 사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속적 영향력이 세상을 넘어 교회에까지 침투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며 타락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지킬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원과 부족한 예산으로 시간에 쫓기리며 신문 제작에 임할 수밖에 없더라도,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감사하며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실린 글들과 기사들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며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나라에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의 글들이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 나가십시오. 신문과 신문을 향한 어떠한 공격과 압박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지령 3,000호가 되었을 때, 정말 3,000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킨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솔직한 성찰과 냉정한 평가 아울러 보수정론 특색 살려야 상황과 목회현장 문제에 일관성 있는 성경적 해석과 논평 필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적 의사결정 원리(Optimal Decision Principle)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의 변수와 결과들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과 미래의 변수들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비가 계속 올 줄 알고 뜨거운 커피를 많이 준비한 상인이 만나절이 지나서 비가 그치고 해가 나는데도, 준비한 커피가 아까워서 무더운 오후 내내 뜨거운 커피만을 팔려고 한다면 그는 과거에 얽매어 최악의 결정을 한 것이고, 나쁜 결정으로 인해 결국 그는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된 일기 상황을 보고 잘못된 예측에 얽매이지 말고, 열음을 준비해서 아이스크림을 팔 계획을 세우거나 아이스크림을 팔도록 새로운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자신만의 색채를 갖되 변화

치유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복음적이고도 순수한 기독교 언론의 위상을 세워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3.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도 힘쓰십시오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회장 김승희 목사 외 임원 일동

기독교 미디어, 기독교 신문사역의 미래

기독교 미디어, 기독교 신문사역의 미래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의 1500호 발행을 축하한다. 이는 기독교 언론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장을 긋는 귀한 성취이다. 더구나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디아스포라교회를 위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민임을 믿는다. 간단하게 계산해도 50여회의 발행 일수를 생각한다면 30여년의 눈물어린 충성된 헌신과 수고와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자랑하다.

신문발행 횟수만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운영만 생각해도 쉽지 않은 사역인데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을 위해서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를 무려 28회 동안 섬겨온 것도 마땅히 칭찬 받을만하다.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강한 일을 이루어낸 신문사와 모든 관계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한다.

특히 미주크리스천신문은 편파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유행이나 인기엔 연연하지 않고, 균형잡힌 기사로 명성이 높다.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의 증진을 위하여 수고해왔다. 상업적인 판매 부수의 증가보다는 문서선교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타협하지 않고 견지해온 것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고자의 한 사람으로 기립 박수를 보낸다.

사실 특집호를 맞으면서 '기독교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원고부탁을 받으면서 고민에 빠졌다. 이 질문은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질문이다. 어떤 미디어를 말하는가에 따라서 평가와 미래의 전망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기독교 미디어는 이미 복잡한 장르가 되었다. 미디어 자체가 단순히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매체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단시일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전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렸다.

기독교 미디어 속에서도 급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기독교 음악, TV, 인터넷, CD, CCM, Movie, DVD 등의 영역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독교 미디어의 존재는 너무나 귀하다. 그전에는 약세를 면치 못했던 기독교 영화제작도 끈질긴 노력 끝에 미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①매체의 다양화 ②지속적인 양질의 내용개발 ③독자의 관심과 사랑
하나님의 계시가 인쇄문화로 꽃피웠듯 기록된 말씀은 약화되지 않아

하지만 기독교 라디오 등의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여러 번에 걸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스스로 자멸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전 미국과 세계를 커버한다고 자처하던 헤롤드 캠핑의 패밀리라디오Family Radio의 몰락은 예견되었지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이들을 기독교 미디어 미래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미디어를 볼 때에 험난한 미래를 예고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신문사역이라는 주장들이 많다.

이런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1500호를 발행을 축하하면서 기독교 신문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자 한다. 물론 나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미디어 트렌드를 예고하는 전문가도 아니다. 기독교 신문사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안일 뿐이다.

기독교 신문사역의 위기가 도래했다

기독교 신문사역, 문서사역의 위기가 왔다 혹은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도전을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기독교 신문사역 이전에 세상을 먼저 보기를 원한다. 언론계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극심하게 토론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종이로 발행하는 신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

였다.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많이 있다. 신문미디어의 전문기관인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가 내어놓은 미국의 광고 수입 변화의 동향이다. 그전에는 광고수입 중에서 인쇄매체의 수입율이 전부였다. 2002년에 눈에 보일 정도로 태동하기 시작한 온라인 광고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문들이 발생하는 수익이 2001년에 거의 700억불에 가까웠는데 2010년에는 무려 170억불로 감소되는 엄청난 감소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광고수입이 1/5로 줄어든 것이다.

2009년을 기점으로 우려하던 대로 대형 신문사들이 연달아 파산을 선언하였다. The Rocky Mountain News는 살 사람이 나서지도 않아서 파산하고, the Seattle Post Intelligencer는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고, 아리조나의 가장 오래된 신문인 Tucson Citizen은 발행을 중단했다. 유명한 신문사들의 파산 리스트는 훨씬 더 길다. 이런 충격은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모든 신문과 출판산업의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급상승하는 인쇄비용, 급격한 광고판매의 감소, 그리고 엄청난 수입원이었던 구인구직 광고란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인쇄물의 판매감소에 고통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도중에 증발해버린 것 같은 현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마저 생겼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세계는 '종이없는 세계paperless world'로 몰아가고 있다. 배달 받아보던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대신에 전자메일로 대처하려는 기업들의 압력이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이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이 존재한다.

기독교 신문사역도 위기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꼭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미국 내의 책 판매량이 많

이 감소되었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등에서의 영어서적의 증가를 가져다주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신문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 물론 이런 신문과 출판산업의 구조변화가 기독교 신문사역의 미래를 예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별히 온라인 인터넷뉴스들이 시장점유율을 나누어 가지면서 위기의식이 더 고조되었다. 아직은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점유율이 낮기는 하지만 짧은 역사에 비하면 놀랍도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귀한 일이다. 기독교의 인터넷에서와 디지털 사역은 더 발전되어야 할 일이다.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이 인터넷에 차지하는 점유율에 비하면 극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체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충격을 직시해야 한다. 구전문화에 수천년을 살던 인류는 인쇄문화인 인쇄술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 그 인쇄술이 미

칠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인쇄술의 발달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경책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물론이고 기독교 인쇄물들이 인쇄되면서 종교개혁의 물결은 세계를 덮고 오고 오는 시대에 변화를 주는 귀한 매체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에 바로 이보다 더 엄청난 충격과 별서 일어났다. 영상매체들이 왕성한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영상시대이다. 인쇄시대가 가고 영상매체가 몰려오면서 세계관이 변했다. 생각의 패턴이 변화되었다. 인쇄문화는 직선적linear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뜻을 알 수 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논리의 시대였다. 왼쪽 뇌의 시대였다. 그런데 영상의 시대는 다르다. 길게 설명해야 할 말들이 이제는 한 장의 그림으로 말진으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시대가 되었다. 논리보다는 직관적이다. 이성

이 아니라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

가 되었다. 오른쪽 뇌의 시대가 도래했다. 사람들은 신문을 읽음으로 이야기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영상으로 교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현대에 가장 유행하는 스마트폰의 앱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kakaotalk이다. 출시 40개월 만에 가입자가 1억을 넘었고 사용자가 3천5백만명을 넘었다.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앱들이 많이 나왔다. 그전에는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황송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아니 영상대화를 통해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목사로서 증거하는 설교의 어려움도 여기에 있다. 말을 들음으로 뜻과 이야기를 전달하던 구전문화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설교도 더 짧아지기를 강요당하고, 사람들이 주의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의 20% 이상이 집중하지 못하는 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 이라

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진단을 내리는 기준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집중이 극히 짧은 세대가 이미 왔다는 것이다. 영상광고를 해도 처음 몇 초에 관심을 끌지 않으면 채널이 돌아가는 시대이다. 오직 했으면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바꾸기 전에 '채널 고정!'이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럼에도 기독교 신문사역의 장래는 밝다

나의 소견은 세상의 자료와 모든 염려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문사역의 장래는 밝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신문사역의 장래는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대적인 도전을 극복하는가?

첫째로, 기독교 신문사역은 매체의 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 물론 종이로 신문 발행하는 것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 40개국을 넘는 나라들에게 보급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인터넷 환경이 미국이나 한국 같지 않다. 그들은 신문이 오기를 고대하고 또 기다린다고 한다. 더 많은 선교지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지평이 열린 이 시대의 매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아날로그시계가 전세계를 수백년간 지배했지만 전자시계 카시오 시계가 세계시장을 바꾸었다. 한때 코닥필름이 세계를 지배했다. 아무도 그들을 무너뜨릴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매체인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을 무시하고 고집했다. 그런데 이제는 코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독자들을 위하여 종이신문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한다.

둘째로, 기독교 신문사역은 더 뛰어난 양질의 내용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선정적인 문화, 자극적인 논쟁 등을 통한 관심을 올리는 노이즈 마켓을 즐기는 시대이다. 인터넷매체에서도 클릭 수에 관심을 갖고 논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문사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세상과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문사역의 사명은 타블로이드신문과 같은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기사와 글들로 채워야 한다.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뉴욕목사회

회장 황동익 목사 외 임원 일동



기독언론의 미래와 나아가는 방향

기독언론의 사명: 빠른 정보 아닌 바른 정보 전달에 생명 걸어야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글은 강한 무기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접했던 격언이다. 제대로 의미파악도 하지 못한 채 암기하였던 이 문장이 요즘들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크게 변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이의 발견과 인쇄술의 발달은 삶의 변혁을 가져왔다. 문화의 발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였지만, 인쇄물의 과급이 가져다준 삶의 풍성함은 이전의 어느 것보다 비교될 수 없던 것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교훈과 사상을 담은 정보라 할지라도 언어를 통해 타인과 나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발이 없는 말은 천리까지 간다는 재미있는 말을 빌리자면, 말은 천리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글의 전달이 지닌 파급 효과는 달랐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인쇄술의 발달이 교회의 개혁은 가능하게 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인쇄된 글의 영향력은 항상 긍정적이었는가? 글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그 글을 읽는 독자는 글을 쓰는 사람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개인의 생각이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사람의 의도이다. 그 목적은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 의도와 동기가 진실을 나누려는 것일 수도 있고, 허위를 퍼트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인쇄물의 발달은 분명 삶의 질을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글은 대립되는 두 사상 간의 대결을 위한 도구이다. 상대를 이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은

더욱 날카롭고 살벌한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다 글은 강한 무기이다. 사이버 시대의 글은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무기'이다. 이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알리고 글이라는 무기를 꺼내어 사용하였다. 지금은 다르다. 마치 베틀남

라, 전통 안에 담겨진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거부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의 기본 사상은 자율이다.

개인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서구의 교육 방식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의 축이 상실되어도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리는 항상 대중의 입을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는 일시적인 사회의 현상으로 그치지 않았다. 종교다원주의의 출현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종교의 영역도 진리 자체가 아닌 대중의 목소리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나만의 진리'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 저널리즘의 이상적인 기능이 무엇일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룹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좀 더 날카로운 글을 무기삼아 그들을 대항해야 하는가? 마치 민방위 훈련을 하듯 기독교인들에게 상대의 위험성을 낱말로 알려며 사상적 전쟁에 임하도록 충동해야 하는가?

진리를 살리는 무기로

언론은 파괴적일 수 없다. 기독교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가

독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글을 쓰는 태도를 결정한다. 그 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분의 진리를 밝히기를 원하신다. 나의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나의 글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독교 저널의 생명은 저널리스트의 신앙에 있다. 글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려면, 저널리스트가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글에 진실성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먼저 진리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

기독 저널리스트들은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고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이 타성에 젖어있거나 진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자들의 주위를 끌 수 있는 독특한 표현 방법을 끊임없

뤄지는 일이다. 진리를 드러내도록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글을 읽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저널리스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확신이 글의 방향을 주도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회의 모든 현상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다. 부패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언론은 영적일 일이다. 문화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편이다.

그러므로 기독 저널리스트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글을 써야 한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 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진리는 상대를 죽이는 무기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섬기는 자세이다. 상대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우리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암흑 속에서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계속하여 신속한 정보에 큰 점수를 줄 것이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들을 영웅시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언론은 빠른 정보가 아니라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저널리스트 자신이 아니라, 이 귀한 일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연구하여야 한다. 논리가 분명하고 형식이 선명한 글을 쓸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풍부한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날카로운 글이 감동을 주지 않는다. 글 자체의 우수성으로 세속 저널리스트들의 글을 능가하여 독자를 즐겁게 하려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기독교 언론의 생명은 변화에 있다.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저널리스트의 진실한 글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파워가 있다. 저널리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절대적 진리 배제하는 포스트모던시대, 사회 조화 유도 접촉점은 진리로 글 자체 우수성으로 독자 즐겁게 하려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중단해야

전쟁시 정글에 숨어서 상대를 괴롭혔던 게릴라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히 밝히지 않고 상대를 향해 무기를 사용한다. 한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악플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 '강한 무기'로 인해 정신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 강한 무기를?

기독언론은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타락한 세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위험한 무기'를 대항할 수 있는 더욱 강한 무기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도래된 이후 상대적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전통이 무시된다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

을 주입식과 개방식으로 비교한다. 한국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전달받은 지식을 잘 암기하는 능력을 향해 무기를 사용한다. 한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악플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 '강한 무기'로 인해 정신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던의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대중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대중은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핀다. 사회의 이슈가 떠오르게 되면 정보와 함께 자연스레 이에 대한 해석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된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핀다. 특히 사상적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는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준을 잃어버린 사회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바

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미 세속 언론은 사회의 분열과 공포를 조성하고 부정적인 파워를 규합하여 파괴적인 기능을 일삼고 있다. 교회가 사회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기독 언론은 사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조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상대에 대해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에서 상대를 이해할 여

유가 없다. 상대와의 접촉점은 진리 자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언론의 기능은 단순히 사회의 이슈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진리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글의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기독교 저널리스트는 진리로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P.O.Box 205, Palisades Park, NJ 07650
845 Broad Ave., Suite #4 Ridgefield, NJ 07657
TEL. (201)724-9191 / (201)585-7164(NJKAYC), FAX.(201)585-7764

회장 김동욱 목사 외 임원 일동

기독교 언론의 사명과 나아갈 길

20년 후...미주 한인교계는 어떤 모습일까



정상교 사장 (한비기독교TV)

머리부터 아팠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령 1500호를 기념해 '기독교 언론의 사명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다.

한국을 포함해 언론사에 몸담았던 25년 중 16년을 뉴욕중앙일보에서 종교담당 기자로 활동했기에 그나마 적임자로 봤던 모양이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손사래를 쳤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은 단호했다. 그래도 써야 된다고.

다시 고민했다. 그래,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교계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통해 거대 담론을 풀어어나가는 게 좋겠다고 가닥을 잡았다.

교계 홍보지인가 언론인가

교계에선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지를 '세상신문'이라 부른다. '교계신문', '기독교언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불려지는 것 같다.

세상신문이자 세상언론도 교계 취재는 언제나 만만치 않다. 큰 행사나 미담을 취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애정과 시간을 쏟으면 좋은 기사가 거리가 많다. 하지만 교계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분열의 역사만큼 교회 분쟁, 신학적 논쟁 등은 끊이지 않는다. 세상신문인데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자면 끝이 없고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그래서 세상신문도 각자 회

사 사정에 맞게 보도준칙을 두고 취재한다.

세상신문은 교회나 교계 단체 등과 큰 관련이 없어 사실에 근거하기가 그나마 자유롭다. 하지만 세상언론도 종교계 취재는 될 수

언론의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교계신문이 사실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교계 각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 보도'라고 말하지만 한 발짝 물

있으면 피한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교계 분쟁이나 내용 문제를 다룬 기사에 대한 비난의 도가 지

라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교계언론이 교단이나 단체, 교회 등의 영향력을 무

다. 이는 세상신문도 권력이나 광고주 등으로부터 받은 외압과 별반 차이가 없다.

세상신문은 권력이나 금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론의 사명을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광고, 판매, 사업 등을 통한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계언론은 교계가 돕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 않는 구조이어서 언론의 제 기능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고,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기사가 넘쳐나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교계 홍보나 여론형성에 치우치지 보니까 교계 홍보지 또는 '복음매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교계언론의 현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교계 비리와 잘못된 관행 등을 상대적으로 집중 보도하는 교계 언론도 생겨났다가

말음도 밀바탕에 두어야 한다.

기독교계 언론의 미래는

간혹 교계언론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묻는다. 교계기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20년 후 한인교계의 모습은 어떤 것'을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기사를 하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그만큼 교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0년 후의 교계는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보다 교세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교회는 물론 한인교계의 뜨거운 선교열정과 부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던 세계 교계와 미국 주류 교단에서조차 유럽이나 미국 교계의 전철을 따르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한인교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분석한 논문이 예전에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인 목사가 쓴 박

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3세대들은 2세에 비해 1세에 대한 향수, 다시 말해 할아버지의 조국에 대한 관심이 2세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2세의 신앙 훈련이 바로 된다면 3세, 4세로 갈수록 이민 교회가 안착된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논문이 아니더라도 2세에 대한 신앙 전수는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바로 교계언론의 출발점이자 나아갈 길이 아닌가 싶다. 교계언론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 소망이 있다.

교계언론의 미래는 어떨까. 언론학자도 아닌 사람이 예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분명한 것은 교세가 감소하는 만큼 교계 언론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교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가 다양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신문이나 TV 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인터넷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들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교계 취재 현장에는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세상언론과 주간 교계신문 기자 한두 명이 고작이었다. 요즘 많이 달라졌다. 큰 교계 행사의 기자회견 때 세상언론과 기독교TV, 주간 교계신문 기자 두세 명을 비롯해 인터넷 교계언론 기자 등을 합치면 10명이 넘는다. 그만큼 교계 언론이 늘어났다. 그 중에 인터넷 언론의 발걸음이 가장 빨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종이신문이나 TV가 사라질까.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언론처럼 미래의 교계언론도 신문, TV, 인터넷, 또 다른 형태의 매체가든 전달수단보다는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이 결국 살아남을 것으로 본다.

교계언론에서 일하는 기자는 열심히 공부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교계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리스천신문도 모든 시대적 도전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대처하여 살아남을 뿐 아니라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하나님께서 문서사역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종들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마지막 칭찬을 듣는 문서사역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인교계의 미래는 2세대들의 신앙 정착에 있다는 결론이다. 이 논문은 2세대는 1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성향이 강해 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3세, 4세로 갈수록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당연히 교

홍보지·선교매체 벗어나 언론으로 거듭나야 기독교계 언론 역할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신문·TV·잡지·인터넷 이어 다양한 매체 등장

전달수단보다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이 관건 언론인 전문성 기르고 교계 사랑 우선돼야

나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세상신문은 종교문제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사실 보도, 정보 제공, 비판, 여론 형성 등 언론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교계

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공정성 시비는 매체의 재정적인 문제가 큰 변수를 차지한다. 광고의 대부분이 교회와 교계 단체 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장 핵심은 정론이다. 교계언론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이 논문에 따르면 한인교계의 미래는 2세대들의 신앙 정착에 있다는 결론이다. 이 논문은 2세대는 1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성향이 강해 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3세, 4세로 갈수록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당연히 교

<10면에서 계속>

불거리가 많은 신문, 감동을 주는 신문, 현재 세상의 이슈들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지적해주는 신문,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문,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매체가 될 때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문사로서 사용해주실 것이다.

셋째로, 기독교 신문사역은 독자들

들이 문서선교에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신문사들이 위기에 빠졌지만 그중에서는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회복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신문사들이 많이 있다. 구독자들이 신문의 필요를 잘 인식하기 때문이다. 영상뉴스매체인 TV나 케이블방송들이 재빠른 보도를 한다.

그것들은 눈을 자극하지만 외부로 보이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가

많다. 물론 특집을 통해서 심층취재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적 요소 때문에 깊은 내면의 것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적다. 따라서 방송이 자각적인 영상들로 가득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도 있는 글, 깊이 생각한 글,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글,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가득한 글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깊이를 주는 귀한 도구들이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기독교 신문사역에 우리

는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도와야 한다.

사실 신문매체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TV가 처음 나왔을 때, 경제 공황과 위기가 왔을 때, 인터넷 등의 영상시대의 도전들은 끝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 신문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의 매체를 다 사용하신다. 구전문화도, 인쇄문화도, 영상문화도 다 성경 안에 있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회장 박효우 목사 외 임원 일동

981 S. Western Ave. #401, Los Angeles, CA 90006
www.theckc.org churches3000@gmail.com



목회서신

회개와 하나



이재근 목사 (주사랑산교회 담임)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에 대한 키워드(Key Word)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세대에 '회개와 하나'가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회개 (Repentance,悔改)

십여년 전 이야기입니다. 익명

의 목사님이 교회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고민 중, 수정교회(Crystal Church)의 교회성장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개강예배에 로버트 솔러 목사님의 말씀 중, 교회가 성장, 부흥하길 원한다면 '죄, 회개, 십자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 상기 4가지 주제를 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여년 전보다 더 상

기 4가지 주제, 특히 '회개'에 대하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부담을 갖고 떠나갈까봐 전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역사는 바로 회개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

침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 출석하고, 충성 봉사해도 기도의 응답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회개는 모든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Nothing!).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2. 하나(Be One)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들(제자들과 성도들)도 내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요 17:21-23). 하나님께 영적 동심원, 즉 제자(성도)들<예수님>(하나님으로 하나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다" (엡4:4-6)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사도 바울도 모두 주 안에서 하나되길 원하지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떤 단체든 모두 하나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마침내 헤어지고, 분열하고 있음이 현실적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 이간질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세기적 사탄의 교회파괴공작은 가정과 교회에 유익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파수하고, 복음화시켜 하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1)겸손의 원리(마11:29, 빌2:5-8) (2)화해의 원리(마5:24, 고후5:18-19) (3)용서의 원리(마6:14-15, 18:18, 23-35) (4)사랑의 원리(요13:34, 롬13:8, 고전13:13)입니다. 이상의 4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5)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가정전국, 교회전국을 이루도록 힘쓰십시오.

제31회 HYM컨퍼런스 20일, 21일

'Man of Integrity' 주제, 주강사 김승욱 목사

HYM(남가주청년연합회, 대표 더글러스김)은 오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에서 제31회 HYM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분당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인 김승욱 목사를 주강사로 하고 'Man of Integrity'라는 주제로 집회를 갖게 된다. 김승욱 목사는 전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2010년 제23회 집회강사였으며 4년 만에 다시 남가주를 방문하게 된다.

HYM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크리스천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집회기간동안 나누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지난 2006년 유니온교회에서 열렸던 15회 집회이후 처음으로 컨퍼런스로 열리게 된다. 일정은 20일 오전 9시30분 등록을 시작으로 10시 오전집회를 갖는다. 오전집회는 김섭리 목사 인도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게 되며 송민우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어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선택강의가 열리는데 허현 목사, 이도환 목사, 김성환 목사, 더글러스 김 대표가 강사로 나서게 된다.

허현 목사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문제를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루게 되며, 이도환 목사는 그림, 음악, 영화 등 문화를 크리스천 문화사역측



제31회 HYM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준비중인 HYM스텝멤버들

면에서 다루게 되며, 김성환 목사는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영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게 된다. 더글러스 김 대표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게 된다.

선택강의에 이어 오후 3시15분부터는 Praise Festival이 열린다. 페스티발은 최윤영, 헤븐스밴드, CCM 루키들이 출연한다. 이어 5시부터 전체집회를 갖게 된다. 전체집회는 주강사인 김승욱 목사의 말씀으로 첫날을 마무리 하게 된다.

두 번째 날은 저녁 7시 최천국 전도사가 이끄는 토기장이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로 오픈 워십이 시작되며, 김승욱 목사의 말씀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끝맺게 된다.

컨퍼런스 참가비는 15달러이며, 첫날 오후5시에 열리는 전체집회와 21일 저녁에 열리는 둘째날 집회는 오픈워십으로 무료입장 가능하다.

▲문의: (714)393-5135/더글러스 김 대표, (714)337-4532/김섭리 목사 hym21c@gmail.com (박준호 기자)

SNS '감사릴레이' 은은한 열풍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사릴레이'가 은은한 열풍을 불러넣고 있다.

감사릴레이는 아이스버킷챌린지 형식처럼 SNS 상에 게시물을 올린 후 다음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다만 3일 동안 감사한 점을 계속 올려야 하고, 이 규칙을 어기더라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 페이스북 등 SNS에는 감사릴레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2500여명이 가입한 페이스북 '감사합니다' 페이지에는 하루에도 10여개 이상 '감사함'을

NC교협 순회 선교부흥회 7일 시작

9월 14일, 21일, 28일... 브라질인디오 후원

노스캐롤라이나(NC)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성균 목사) 순회 선교부흥회가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웨이트민에서부터 시작된 순회 선교부흥회는 비가 많이 오는 우중이었으나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사로 나선 NC교협 회장 나성균 목사는 직전 회장에서 전통을

세운 새생명교회(담임 홍종수 목사)에서 시작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나성균 목사는 "먼저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 사랑을 본받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며, 이번에 후원하는 브라질 인디오 원주민들을 사랑하자고 강조했다. NC교협은 지난해 개최한 선교 부흥회를 통해 1만 달

뉴욕장로성가단 캐나다 공연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지휘 이정진)이 지난 8일 캐나다 동신교회(담임 박태겸 목사)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단장 손성대 장로

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쓰임받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연주회를 준비했다"며, "미국을 넘어 캐나다에서 연주회를 가진 것이 뜻깊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대형버스로 움직인 뉴욕장로성가단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박을 하고 토론토에 도착해 공연을 가졌으며 귀환 길에는 천성에 들려 관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공연은 박태겸 목사의 환영사와 말씀에 이어 기도 김춘권 장로, 뉴욕장로성가단의 찬양 '신자되기원

리의 헌금을 하이티 고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대회는 홍종수 목사의 인도로, 기도 김웅철 목사, 성경봉독 이순모 목사, 헌금기도 김영만 목사, 축도 이승태 목사로 진행됐다. 집회 후에는 새생명교회에서 제공한 만찬을 하며 교제를 나눴다.

나머지 순회일정은 14일(주) 랄리제일인침례교회, 21일(주)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28일(주) 샬롯남부장로교회이며, 시간은 모두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합니다' 등 3곡을 연주하고 손성대 단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트롬본 솔로 김기호 장로, 토론토장로성가단 찬양, Randy Brooks(뮤지컬 'His Life'에서 예수님 역)의 찬양과 이정진 장로와의 듀엣이 있었으며 뉴욕장로성가단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등 4곡을 부르고 앵콜도 받았다.

마지막에는 토론토장로성가단 다과 연합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합창함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은 뉴욕장로성가단 출발에 앞서 후원금 3,500달러를 전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 장로성가단이 캐나다 동신교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 Church in Orange County

회장 민경엽 목사 외 임원 일동

동부교계 게시판



KWMC 제27차 전국년차총회

2014년 KWMC(대표회장 김남수 목사,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 27차 전국년차총회가 11월 3일(월) 오후 5시부터 5일(수) 정오까지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린다. 총회에서는 KWMC의 각 운동본부 및 위원회 및 협력기구들의 사역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KWMC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갖는다. 또한 여러 선교현안에 대한 특강들이 열리게 된다.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의 참석을 환영한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숙박은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에 담당한다. 이메일 kwmc@kwmc.com
▲문의: (718)321-7800 (845)267-4159

정성구 목사 미동부 부흥집회

정성구 목사의 미동부 부흥집회가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일정은 △10월 10-12일 헤리스버그한인교회 △15일 와싱턴중앙교회 △17-19일 볼티모어 경향교회 △24-26일 뉴욕 효신교회.
▲문의: skc0727@yahoo.com

뉴욕권사신교합창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신교합창단(단장, 지휘 양재원)의 제 1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5일(주) 저녁 6시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열린다. 이 음악회는 불우이웃돕기와 선교기금모금 음악회로 열린다. 베넬 챔버앙상블과 협연하며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917)658-3181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9월 월례회가 30일(화) 오전 11시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서 열린다. 당일 10시30분 H-마트 주차장(156 St. Northern Blvd.)에서 교회 밴이 출발한다.
▲문의: (718)565-6555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의 제 32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가 10월 8일(수) 개강한다. 강의 주제는 '휴대용 컴퓨터 활용법'이며 강사는 문석진 목사로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에 걸쳐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리며 점심이 제공된다. 제 32기 컴퓨터 강좌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20달러이나 기독교뉴스 정기구독자는 등록비가 면제된다. 등록은 10월 7일(화)까지 이메일newyorktop@gmail.com으로 접수한 자에 한한다.

건물이전 12월1일·선관위 세척수정

뉴욕교협 제4차 임실행위...총회 10월 27일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의 제 4차 마지막 임실행위가 지난 8일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교협건물 매각과 이전에 대해 보고하고 선관위 업무 세척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업무 보고로 △2014할렐루야복음화대회 △건물이전 업무진행 상황 △선관위 업무일정 △청소년센터 밴 구입 모금 등에 관해 보고했다.

이대연 장로는 건물이전에 대해 190만 달러에 매입한 건물로 이전은 올 12월 1일이 될 것이라며 BBCN은행에 45만달러 융자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관위(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8월 4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9월 19일 정부회장 임후보 등록공고를 하고 29일 후보등록을 시작해 10월 6일 정으로 마감한다. 이후 6일 서류 심사를 하고 10월 10일 공고하게 된다. 20일에는 언론토론회(장소: 뉴욕신



뉴욕교협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일교회)가 있으며 27일 정기총회(장소: 뉴욕사랑의교회)를 열게 된다.

교협건물이전에 따라 약속한 청소년센터 밴 구입비는 3만5천 달러인데 지난달 28일 골프대회에서 1만여 달러가 모였다. 교협은 추가적인 회원회들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선관위 업무세척 수정안은 제16조 1항인 "회장, 부회장은 재적인원 2/3이상의

득표를 하던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제2항 "회장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을 기본으로 보충해 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송병기 법규위원장은 보충내용을 교협 웹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회원들의 개진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가입교회는 신청한 9개 교회 중 총 6교회로 다음과 같다. 라이프라인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 ARPC), 주님의식탁교회(담임 이종선 목사, 개혁), 좋은목사교회(담임 김신영 목사, UPCA), 주

님사랑선교교회(담임 박현숙 목사, ECA), 뉴욕열린교회(장현숙 목사, ECA), 뉴욕한마음교회(담임 정양숙 목사, ECA).

신규가입은 15명 이상의 등록교인이 있는 서명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정대영 목사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 성경봉독 이수원 장로, 설교 이재덕 목사, 통성기도,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김영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덕 목사는 "아름과 예서의 상봉"(창33:1-11) 제목의 말씀에서 "예서는 아람이 자신을 속이고 복을 빼앗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람을 보면서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행위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 항상 본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아름은 예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아내를 앞세운 연약함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서를 만나 간절히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흑사 서운함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대학교 이사장 학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 및 취임예배

이사장 김영환 목사, 학장 허윤준 목사

뉴욕전도대학교가 지난 2일 허윤준 학장과 김영환 이사장을 새로 세우고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가을학기 개강예배와 아울러 취임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박현영 목사 인도로 기도 황경일 목사, 특송 새소망합창단, 설교 김승희 목사(뉴욕교협 회장), 결단의 기도, 이사장 취임사, 학장 취임사, 공포패 증경, 축가 송지혜와 진광훈, 축사 김수태 목사, 봉헌찬송 손소혜 집사, 봉헌기도 안승백 목사, 광고 박차숙 전도사(서무처장), 축도 황동익 목사, 만찬기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임 이사장 김영환 목사는 "최근 학생수가 줄고 많이 위축돼 힘든 상황이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므로 발전하는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충성하며 잘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윤준 신임학장은 "뉴욕은 수백 인종이 모여 사는 가장 첨예한 선교지이다. 이러한 뉴욕에서 전도대학

교는 전도협의회와 함께 상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영환 이사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윤준 목사는 1주일에 3회 피를 두르고 야외전도를 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뉴욕전도대학교는 2014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의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이며 수업 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현장전도훈련을 하고 있다. 등록금은 100달러(부부 150달러).

한편 뉴욕전도대학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희량 목사를 강사로 뉴욕연합전도부흥성회를 개최하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정진모 목사를 강사로 하는 뉴욕연합전도세미나 '노란순수건 전도법'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8)637-1470, (516)528-9119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가 주최한 2014 청소년할렐루야대회가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다

Rise Up NYC! 뉴욕이여 일어나라!

AYC, 2014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성료

뉴욕교협 산하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최창섭 목사)가 주최하는 2014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오후 7시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한 목사)에서 열렸다.

"Rise Up NYC!"(뉴욕이여 일어나라!, 사60:2-3)라는 주제로 강사는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의 영여권 워십 디렉터 샘 최 목사가.

필라델피아 찬양팀의 찬양 인도에 이어 AYC 공재규 사무총장은 인사를 통해 뉴욕의 550여 한인교회 중 유스 전문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30여 교회밖에 되지 않는데,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강사 샘 최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가졌다. 참석 청소년들은 유스 사역자들과 함께 둘러서서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신 열정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최 목사는 "미래의 주역

인 우리 2세대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돼 뉴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도시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부수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예배에 집중하는 대회로 계획했으며 예배에 집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돼서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활발하게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첫째 날 대회에는 뉴욕교협 부회장 이재덕 목사가 축도했으며, 둘째 날에는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최창섭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AYC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교통편을 위해 밴을 구입하기로 하고 골프대회를 통해 1만여달러를 모금했으며,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2만여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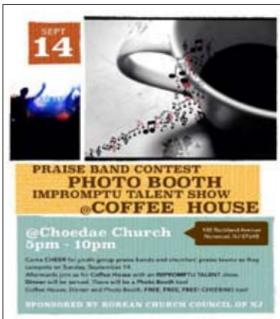
청소년찬양경연대회, 총회 준비

뉴저지교협 27회기 마지막 월례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 제 27회기 마지막 월례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 뉴저지행복한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남은 회기 동안 해야 할 행사와 총회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진행될 행사는 다음과 같다. △제 1회 청소년찬양경연대회: 9월 14일(주) 오후 5시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제 28회기 정기 총회: 10월 6일(월) 오후 6시 뉴저지행복한교회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될 '청소년 찬양경연대회'는 제 1부와 2부로 나뉘며, 2부에는 참가교회들의 찬양 대회가 있고, 제 2부는 뉴저지에



산재해 있는 한인교회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을 위해 'Coffee House'(포스터첨부)를 제공한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총회직영

워싱턴 개혁장로회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of Washington

1600 W. Seminary Ave., Lutherville, MD 21093 / (301)512-7988, (443)520-5242

학장 이영섭 박사(Ph.D)

www.reformedpsw.org

차세대리더 89명에 총5만6천5백불 지급

남가주교협 OC교협 공동주관 장학금수여식 성황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공동주관한 차세대 리더 장학금수여식이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7일 오후 5시 성황리에 거행했다.

이날 수여식은 남가주교협에서 2만6천5백 달러, OC교협에서 3만 달러를 모아, 남가주협의회의에서 36명,

OC교협에서 5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대상으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의 수여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가정형편과 장래의 비전을 보고 선발했으며 이중 8명은 타민족 학생이다.

특히 남가주교협에서 현재 이라크 지역 IS에게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 출신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OC교협에서 선정한 장학금 수여대상자 중에는 히스패닉 학생들이 포함됐다.

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OC교협에서 선정한 장학금 수여대상자 중에는 히스패닉 학생들이 포함됐다.



남가주교협 OC교협 공동주관 차세대 리더 장학금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교협 OC교협 공동주관 차세대 리더 장학금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하라”

미주총신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강사 고귀남 목사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는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지난 2일 오후 7시 본교채플실에서 개최했다.

전철영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강부흥회는 이재경 학장이 기도했으며 고귀남 목사(LA연합교회 담임)가 요한복음 4장 19-2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고귀남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길은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는 열매는 변화다”라고 말했다.

고 목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중심의 예배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단에서 말씀중심으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전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른다. 주신말씀 믿고 깨달아 여과 없이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생각, 언어, 행함이 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으며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조성 신대원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온누리소망교회 RM 3-D로 무료진료행사

온누리소망교회(담임 조묘숙 목사)가 개최한 무료 진료행사가 7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Renua Medical 팀에서 참여해 RM 3-D Body Analysis System이라는 진료시스템으로 검사를 했다.



온누리소망교회에서 열린 무료진료 서비스

Renua Medical 팀의 강익호 박사는 “RM 3-D Body Analysis System의 진료시스템은 미국 FDA기준으로 96%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하나당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책상 하나정도이며, 노트북 하나와 외장하드디스크 두 개정도 크기로 이 시스템은 서류가방 하나에 들어갈 정도 크기”라고 언급했다.

강 박사는 이 시스템은 작은 공간이라도 전기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든지 갈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역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건강검진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 시스템은 10분가량의 검사시간이 소요되며 검사 기록 확인까지 1인당 20분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록 확인까지 1인당 20분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RM 3-D Body Analysis System은 당뇨, 콜레스테롤, 전립선, 스트레스지수, 감산성지수까지 체크할 수 있으며, 과거 수술여부까지 체크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건강관리가 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계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건강검진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의: (949)295-1700. ikhoe@hotmail.com

(박준호 기자)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주는사랑체-이민법률센터

이민개혁시 발생하는 신청서 서비스 제공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주는사랑체-이민법률센터는 교회가 커뮤니티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이민개혁이 발생할 경우, 1만명의 한인들에게 무료로 관계 서류 신청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역의 한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이민법률센터 소장 박창형 목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가주교협 회장인 박효우 목사와 협력하기로 결의했다”며, “우선 서비스 대상은 대학생과 21세 미만, 그리고 62세가 넘는 분들로 정했으며 지역은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주력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허락할 경우 전 미주지역의 한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뜻을 가진 1)자원 봉사자들을 미리 영입해 조직력을 갖추는 동시에,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2)대상자들로 하여금 이민법률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미리 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IT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1만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웹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신설자를 찾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새사람 전인치유세미나

제2차 '새사람' 전인치유세미나가 13일과 20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장수 목사)에서 열린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과 남가주사랑의교회 가정사역팀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의 강사는 전담훈 관계심리학박사와 리디아전 임상심리학박사이며 등록비는 40달러. 선교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4)351-9146

컴패션 모빌 행사

국제 어린이 양육 및 후원단체인 컴패션이 12일부터 노스리지 지역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에서 '컴패션 모빌' 행사를 개최한다. '컴패션 모빌'은 대형 모빌트럭을 개조한 일종의 이동전시관이자 체험관이다. 일정은 12일(오전 11시-오후 7시40분), 13일, 14일(오전 9시-오후 6시40분), 15일(오전 10시-오후 6시40분) 등 4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인 탤런트 신애라 씨가 에브리데이교회 주일예배에 참석, 컴패션 관련 활동과 후원 취지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 (818) 832-6628

제4회 'LA사랑나누기 5K 마라톤'

해피리더지가 주관하는 제4회 'LA사랑나누기 5K 마라톤'이 13일(토) 오전 8시30분 열린다. 출발지점은 한인타운 윌턴극장 앞(윌셔 불리바드+옥스포드 애비뉴)이다.

▲문의: (213)368-2607, 2630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미서부 순회공연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집사의 미서부 지역 순회공연 및 집회가 13일(토)부터 24일(수)까지 열린다. 일정은 13일(토) 오후 8시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14일(주일) LA 사랑의 교회 헌금송 1부 8시/2부11시 예배, 7일(수) ANC온누리교회 수요간중예배 7시45분, 18일(목) ANC온누리 한인타운 목요일예배 7시30분, 19일(금) 팜프링한인연합감리교회 저녁간중집회 7시, 21일(주) 하나님의 은혜교회 주일낮 11시 예배 헌금송, 21일(주) 마당 코리안 페스티벌 게스트 오후 3시, 24일(수) 나성순복음교회 수요예배 7시이다.

▲문의: ccmrookie@gmail.com

선한청지기교회 김용의 선교사 말씀집회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김용의 선교사 말씀집회를 19일(금)과 20일(토) 오후 7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626)913-6611

OC 연합성가제

오렌지카운티 연합 성가제가 14일(주) 오후 6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521-0991

LACS 정기연주회

LA크리스천싱어스(LACS 단장 김철이) 정기연주회가 13일(토) 오후 7시 브랜드 라이브러리 리사이틀 홀(1601 West Mountain St, Glendale)에서 열린다. 입장권은 20달러.

▲문의: (213)761-2785

예배찬양을 위한 기타클리닉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예배찬양을 위한 기타 클리닉을 28일(토) 오전 10시 KCCC소극장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 그리고 오는 10월 4일(토) 오전 10시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비전홀에서 갖는다. 강사는 마커스의 찬양사역자 임선호이며 참가비는 25달러(중고등부 15달러, 5명이상 단체 20달러)다.

▲문의: (714)357-5518/LA 최용일 전도사, (425)772-2522/시애틀 김구

또한 대학생 등 이 프로젝트에 봉사할 의사가 있으면 cte.cilc@hotmail.com로 간략한 이력서를 보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213) 739-7888

www.cteusa.org
(기사제공: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주는사랑체-이민법률센터)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0월 31일까지 입학하시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예장백석-성경, 교단 통합 선언

명칭 '예장백석', 백석총회 헌법과 회기 따르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예장성경(총회장 광성현 목사)이 교단통합을 선언했다. 예장백석과 성경 총회 임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백석총회 본부 대회의실에서 통합선언식을 갖고 양측 통합전권위원회가 교단 내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통합합의문에 서명했다.

칭은 '예장백석'을 사용키로 했으며 백석총회 헌법과 회기를 따르기로 했다. 성경 측 전 총회장들과 산하 노회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성경 측 목회자들은 통합 즉시 백석의 정회원이 된다.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하면 동문 자격도 부여된다.

백석은 지난해 9월 예장개혁(장지동 측), 지난 5월 예장개혁(광주 측)과 통합해 소속 교회가 3200곳

에서 4700여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통합으로 다시 5300여곳으로 증가했다. 장로교단 중 예장합동(1만1000여개), 예장통합(8000여개)에 이어 3번째 규모다.

2001년 설립된 예장성경은 지난해 1월 예장 합동대립 측과 통합했다. 2006년부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회원교단으로 활동한 합동대립 측의 역사를 이어받았으며 지난해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달 초 예장 계열의 합동보수(총회장 최바울 목사) 웨신개혁(총회장 장장수 목사) 개혁(총회장 조성훈 목사) 개혁B(총회장 장효근 목사) 등 4개 교단과 통합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70%가 장로교지만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현재 200여 교단으로 갈라져 있다"며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 한다. 장로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갈라진 교회가 다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개혁주의 신앙의 길"이라고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광성현 총회장은 "한교연과 한장총 같은 연합기구에 속한 교단이 통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장로교회의 일치에 나서는 첫 걸음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중학 역사교과서 종교편향 심각

예장통합 세미나... 독립협회·신민회의 기독교 기여 누락

독립협회, 신민회에 대해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국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 서술에 있어서도 천도교 대종교 등 민족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육지원부(총무 김치성 목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교육 관련법 및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세미나'에서 대책위 위원인 강무순 목사는 국내 6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뒤 이 같이 주장했다. 강 목사가 자료로 삼은 교과서는 비상교육, 교학사,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천재교과서, 미래엔이 출간한 것이다. 비상교육 교학사 천재교육의 경우 신·구판 교과서, 나머지는 신판 교과서만 분석 대상으로 했다.

강 목사는 우선 서재필의 독립협회, 신민회, 물산장려운동을 서술한 부분에서 6개 역사교과서 모두 기독교 사상이 끼친 역할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근현대사에서의 기독교 공헌, 1970년대 이후 개신교의 비약적 발전, 북한의 기독교 탄압 등도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광혜원을 소개하면서 광혜원과 알렌 선교사 및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다.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 및 기독교 인물에 대한 흠도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일제시대에 끼친 영향과 관련, 비상교육 교과서는 천도교 대종

교를 기독교보다 훨씬 자세히 서술했으며 특히 신판 교과서는 기독교 기여 사실을 구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3·1운동 부분에서 신판 교과서는 구판과 달리 기독교의 주도적 역할을 아예 배제했고 신사참배 거부 사실도 누락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구판에 수록됐던 민족운동 전개, 신사참배 거부, 순교 내용이 신판 교과서에서 빠졌다. 신판만 있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일제시대 포교 부분에서 천주교 천도교 유교에 비해 개신교에 대한 언급이 매우 짧았으며 교육과 의료사업에 힘쓴 개신교 업적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일제시대 민족종교에 대한 우호적 서술도 공통적인 부분이다. 비상교육 교학사 금성출판사 교과서들은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부분을 소개할 때 '천도교의 방정환'이라든가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소년회'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술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우호적인 천재교과서와 미래엔도 독립·민족운동에 제일 적극적이라고 평가받는 종교는 천도교와 대종교(천재교과서)라고 기술하거나 대종교의 항일운동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뤘다(미래엔).

강 목사는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개신교 평가가 민족종교는 물론 가톨릭에 비해서도 덜 호의적이어서 한국교회의 위상 하락을 실감했다"며 "한국교회 전체가 역사교과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GMS 새 이사장 김재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는 4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GMS는 100개국에 23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최대 교단 선교부다.

이사장에는 김재호(62) 서울 동산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박수로 추대됐다. GMS 이사장은 총회 임원, 총신대 재단·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과 함께 총회를 이끄는 핵심 보직 중 하나다.

김 목사는 "GMS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고 인사 재정 교육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겠다"면서 "총신대와 협력하고 청소년·청년·대학생 선교집회 등을 개최해 선교 후보생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후원 파송교회가 점점 줄면서 주 파송 교회의 후원이 끊긴 선교사 가정만 200가정이 넘는"면서 "전국 교회가 후원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이사장에 장봉생(서대문교회) 김찬근(안양성수교회) 박재신(양정교회) 문상무(고정중앙교회) 박창식(달서교회) 목사, 총무 민찬기(예수인교회) 목사, 서기 김종혁(명성교회) 목사, 회계 현상민(성산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GMS는 사업보고에서 지난 1년간 장기선교사로 61가정 111명을 파송했으며 단기선교사 4명, 명예선교사 2명을 선교지로 보냈다고 밝혔다. 선교훈련은 127명이 받았으며, 32명이 은퇴하고 4명이 순직했으며 선교사 자녀 3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예산으로 25억7000만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선교사 자녀(MK)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배정했다. 정관 개정은 추후 임시총회 때 다루기로 했다.

이날 감사보고에선 "선교사로 20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이 2000만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선교사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사무소를 경기도 화성 월문리 GMS 훈련원으로 옮기고 차액을 선교사들에게 제공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3면에서 계속)

3.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빈약은 영적인 불경기를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남미 개신교가 1900년에 비해 12배 이상 불어났는데 개신교의 80%가 오순절 계통교회인 것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간증하며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와 사랑을 동반하는 동시에 복음의 열정(전도), 선교의 열정, 영혼구원의 열정을 동반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주님

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나, 초기의 선교사들, 거룩한 전통을 이어가는 주의 일꾼들은 다 가슴에 불붙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차지도 덤지도 아니한 상태는 이미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믿음의 거성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박관준, 이기풍, 이성봉 등 존경받는 자들, 요소요소에 믿음의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큰 사람은 많으나, 존경받는 믿음의 인재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정, 일상사오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4.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교육 투자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는 주일학교 부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 시대의 학생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최전성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성세대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영성교육을 등한시 하게 되면 기독교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주어진 군선교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군이 복음화 되면 청년이 복음화 되고, 청년복음화는 다음 세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제2세대이 복음의 거룩한 전통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열정적 리더들을 많이 배출시

키는데 혼신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특히 놓여준 교회는 기성세대가 죽고 난 뒤 교회가 없어지고 말 처지에 있는 교회가 엄정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에 세뇌되어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 대안과 비전, 그리고 각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고 경성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절하게 호소하며 한 알의 떨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각성, 사랑 회복, 믿음의 열정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교육에 투자한다면 한국교회는 더더욱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과 기도만이 해답

(4면에서 계속)

모세는 알았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로 쟁취하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을 르비딤 평지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 출17:11을 보면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의 칼에 의해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 선교사들이 전쟁이 치러지는 현장에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애를 쓴다. 패배는 당연하다. 교회가 치르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상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기 때

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시시하게 건물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목회, 선교를 하자. 회개하고 기도로 승부하라.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승부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물뱃듯 부어줄 것이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 질 것이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승부하라.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백문일답, 오직 예수!

(6면에서 계속)

나가는 말

처음 밝힌 바와 같이 순전히 이민 목회 12년차를 맞는 한 지역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가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한인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며 씩씩하고 고민한 "열린

교회, 열린 목회 이야기들"입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팍팍 부흥하고 있는나?를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목회에 부닥쳐 오는 다양한 위협과 회유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보고 싶다는 현장 목회자의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다가오는 문화에 대한 분석 그리

고 교회와 복음의 대응 준비 등등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아야 할 근원적인 바탕은 "성서적 교회와 신앙에 대한 본질 강화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봅니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이 본질에 목회적 관심을 갖고 정직성과 성실성으로 고민하고 씨

름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광야 길을 인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적어도 보여지는 바로 그때, 성도들은 그 모습 속에서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상호 신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스스로의 개혁과 변혁을 위한 자정 능력이, 교회가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

니다.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그 위기를 직시하고 자각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코 어둠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역 재현으로 존종과 배려, 섬김과 나눔,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분명

하게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담아내 봅니다. 백가지 물어보아도 오직 대답은 하나, 예수! 뿐이라는 고 김준근 목사의 "백문일답"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도 역시 "예수!"만이 유일한 대답임을 믿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500 호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Fax.(718)463-7047

학장 장영춘 박사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세계는 갈수록 험악한 분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5시 BBC뉴스(미얀마 4일차 오후)는 알카에다 지도자 자하리라가 알카에다 지부를 인도에 설치하고 남아시아 국가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를 대상으로 알카에다를 활동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IS(이슬람국가)가 미국 기자를 또 참수하겠다는 보도에 이어 나온 보도라 참으로 안타깝다. 종교의 이름으로 무서운 살인극이 계속되고 있다. 알카에다의 이 선언은 특히 이슬람의 확장을 공식으로 막고 있는 미얀마 정부와 한판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늘 뉴스는 먼저 동남아 뉴스로 시작하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가 9월 5일자로 발표한 인구조사 통계는 총 5천1백40만명인데, 여기에는 해외거주자와 무슬림인 로힝가 사람들 및 일부 주 인구는 제외됐다. 미얀마는 인종갈등, 종교갈등이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한 불교단체 지도자는 노골적으로 인권보다는 민족주의가 더 중시되는 정책을 폄하한다고 주장했다.

다. 그는 주장하기를 미얀마 정당들이나 모든 정치가들은 민족주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폄하한다고. 그가 말하는 민족주의란 “국가종족그룹들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국가종족그룹이란 미얀마는 135개의 인종그룹이 있으나 Burmese종족 외에 7개종족만이 정식 미얀마 시민이고 다른 인종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 같은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다. 그의 발언은 Burmese인종과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될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이 단체가 불교도 미얀마 여자들은 다른 종교의 남자와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이고 불교 힌두교 등 다신론 종교가 더 관용적이라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화주의자들과 다원주의자들은 동남아 불교의 폐쇄성을 잘 보았으면 한다.

중순에 제시함을 본다고 한다. 미국서 박사학위를 한 교육부장관이 정부가 시행하는 시험에도 워낙 부정이 심하여 개혁의 칼을 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커닝과 뇌물이 공공연한 동남아 국가에서 과연 개혁이 성공할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교에 눈을 뜬 동남아 불교

동남아 소승불교는 1960년대 초기부터 세계선교를 시작했다. 스리랑카가 먼저 불교의 세계화를 주도했다. 1920년대에 기독교와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스리랑카와 미얀마에 YMBA를 조직했고, 불교국



불교선교대학전경

제 컨퍼런스의 규모도 대단하다. 발표된 논문의 수준도 아주 높다. 최근에 와서는 절들도 주일학교를 시작, 주일 오전에 아이들에게 불교주일(?)학교를 함으로 교회 오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주

일학생들을 절에 빼앗기고 있다. 1998년 미얀마 정부는 최초로 국제소승불교선교대학(International Theravada Buddhism Missionary University)를 세웠다. 이 대학교는 교리학부, 수행학부, 선교학부, 외국어학부가 있고 박사학위까지 주는 학문이 높은 학교이다. 현재 29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왔다. 학부란 단과대학을 의미한다. 동남아 불교국가 선교가 어려운 것은 불교의 선교강화 정책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2. 중국은 결코 세계적 대국이 되지 못한다: “중국은 선교적 나라도 아니고 세계관도 세계적이지 못된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코노미스트 8월 28일자는 “중국은 무엇을 원하는가?”는 주제로 중국특집을 내었다. 내용은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곧 능가하지만 결코 미국이 Pas America된 것처럼 중국은 결코 그런 대국은 못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중국은 선교적 문화도 아니고 가치관이 강대국이 못된다. 공산주의 이념을 고집, 보편적 가치관이 결여되어 세계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기보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옛 속담을 인용한다. “집 앞의 눈은 치우는데, 옆집 지붕의 서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 교수는 중국의 지하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다른 나라로 보낸 현실을 외면한 것 같다. 중국은 지금 전능신 이단 박멸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하고 있다. 홍콩시민들은 끈질기게 민주화된 홍콩을 위하여 데모하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중국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또 민주주의가 되면 위구르 등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이 붓물 터질 듯 할 것이다. 아시아 고민은 독재는 무너져야 하지만 반면 민주화는 혼란을 의미한다. 여기에 아시아의 고민이 있다.

3. 심각한 이라크 사태: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라크는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예언한대로 피바다가 되고 있다. 최근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조직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잔인한 살인극을 벌이자 미국이 공습에 나섰다. 이들 목표는 전 무슬림 세계를 지배하고 나아가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이슬람의 지도자인 칼리프는 자기들이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칼리프 선언을 하였다. 북아프리카의 보코 하람 이슬람 단체 한 리더 역시 스

스로 칼리프라고 선언하였다. 칼리프는 하나여야 하는 별씨 들이 등장했다. IS본부는 시리아 아라카에 있다. 회원은 이라크에 7천명에서 2만명, 시리아에 3천-5천명으로 추산한다. 이 그룹의 이념은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기초한, 반서구적 이슬람운동이다. 이들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의 지하디스트로 고심하는 유럽국가들

최근 IS테러단원 중 상당수가 구파파 국적의 소유자들이어서 구파파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프랑스가 가장 많은 700명, 영국 400명, 독일 270명, 미국 70명, 네델란드 150명, 벨지움 250명 등이고 중동국가의 튀니지가 3천명, 요르단 2089명, 사우디 2,500등이다. 미국 기자 참수때 영국발명의 테러단원으로 영국 정부는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을 보면 주로 아랍국가나 다른 무슬림 국가의 이민자들로 보인다.

한국도 해외에서 온 무슬림이 무려 십만명을 넘어서고 이들의 자녀들 중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반감을 품고 테러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과격 테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20면으로 계속)



고향을떠나는 야지디신자들과 기독교신자들

야지디신도를 학살장면

학살당한 야지디신도들

1. “인권은 민족주의보다 덜 중요하다”

“Human rights less important ‘nationalism’; Senior Monk,” The Myanmar Times, September 1-7, 201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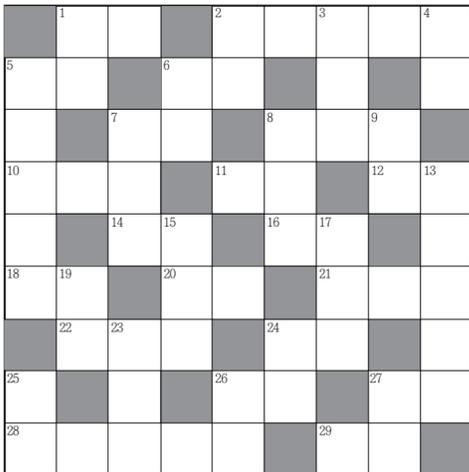
위 제목은 어제 미얀마 불교단체인 국가와 종교보호중앙위원회(일명 마바타로 부름) 지도승려인 사야도 아신이 공식으로 한 말이

개혁의 칼을 뽑아 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동남아 국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해야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발급되고 대학에 갈 수 있다. 미얀마는 금년 32%가 합격하였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금년 9만 명 고등학교 졸업생 중 20%만 시험에 합격, 나라가 시끄럽게 되자 10월

십자말 • Cross Word (5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기상의 급변으로 오는 싸라기. 눈 보다 크고 뚝뚝한 덩이 눈(출 9:18).
- OOOOO이 빛나는 아침(찬248장).
- 보통과 다른 형상(겔43:3).
- 베냐민 부족에 있어서의 레위 사람 성읍(수21:18).
- 소리를 내어 슬피 우는 울음(삼하11:26).
- 몹시 많음(눅14:25).
- 온 세상에(욥37:12).
- 팔이 몸에 붙은 자리와 목 사이 윗바다(대상15:15).
- 이야기(삼상9:25).
-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대상12:33).
- 남몰래 알고 알리지 않는 일(롬11:25).
-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전12:11).
-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일을 포함(행9:23).
- 집에서 기르는 짐승 종류(상사).
- 건축물이 다 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신20:5).
-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고르게(골4:6).
- 사람의 목숨을 해침(에8:7).
- 벗, 친구(단2:17).
-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OOOOO이...(계21:2).
- 눈 앞(겔12:4).

<세로 푸는 열쇠>

-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사2:18).
-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나안인(마10:4).
-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행함(롬8:30).
- 흰하게 닦음(시118:5).
- 단의 고을(수19:41).
- 쪽정이나 기타 잡것을 모두 골라낸 곡식(마3:12).
-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주선하거나 장례시에 묘지까지 상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창50:14).
- 기(氣)가 허하여 착각으로 나타나는 환영(幻影)(고전3:20참조).
-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잠11:13).
- 나무의 일종(느8:15).
- 건축을 시작할 때 올리는 의식(상사).
- 소맥분(겔46:7).
- 청하는 바를 들어줌(몬1:14).
- 성문 위에 지은 누각(삼하18:24).
- 괴로운 인간세상(습10:11).
- 해오라기와 비슷하나 훨씬 큰 새(신14:18).
- 시적 명칭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함이라 한다(시76:2).
- 구리로 만든 돈, 페니(상사).

십자말 정답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GRS 글로벌리폼드신학대학원

총장 (Dr. Samuel Larsen) 원장 Dr. Eunsoo Kim 이사장 Dr. Bill Hay



Global Reformed Seminary (GRS)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문의: Tel. 770-493-4004, 770-827-9689.
grsglobal.info@gmail.com, Website: www.grs2011.org





시론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의 허상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한때 '제 2의 마릴린 문로'로 불리던 영화 배우 애니 니콜 스미스(39)의 돌연사와 관련된 그녀의 일생이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불광소녀와 스트립 걸에서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과 영화배우로의 변신, 그녀의 나이 26살이던 1994년, 당시 89세의 석유재벌 하위드 마셜과의 결혼, 이후에 16억불이나 되는 막대한 법정 유산싸움, 약물중독,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되어 숨진 기구한 운명... 사인으로 과다한 약물중독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1962년 36살을 일기로 숨진 문로의 삶의 완벽한 복사본이 되는 셈이다. 그녀의 기구한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모 역시 문로를 닮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녀에게서 어쩌면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증후군을 엿보게 된다.

독일의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공인 베르테르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만 끝내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당시 이 소설은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소설 속의 베르테르처럼 노란 재킷을 입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마침내 이 책은 판매금지라 되게까지 했다.

이 사건에서 연유해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자살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사람과 스스로를 동일시해서 자살 시도를 따라하는 현상을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트 필립스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동일시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모방심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20년동안 자살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본 결과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자살률이 경중 뛰음을 밝혀냈다. 마릴린 문로가 사망한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미국인의 자살이 12%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떤 연구는 유명 인사의 자살보다가 있게 되면 자살이 평소의 14.3배로 늘어났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럽과 미국문명권에만 있는 예가 아니다. 아시아 권도 예외가 아님을 실감한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언젠가 일본의 인기 가수 유키코가 투신자살을 했을 때 30명의 일본 청소년들이 연쇄자살을 했고, 인기 록그룹 X재팬의 기타리스트 히데가 자살을 하자 3명의 여학생이 동반자살을 했으며, 장례식장에서는 무려 12명의 여성이 실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역시 '베르테르 효과' 혹은 '동일시 증후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도 연예인들이 목매 자살하는 예가 많아졌다. 2005년 2월, '주홍글씨'에서 열연한 이은주란 여배우에 이어 한국의 가수 유니가 2집 발표를 앞두고 인천의 집에서 목매 자살했으며, 이로부터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탈탈트 정다만 양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베르테르 증후군'의 허상을 보게 된다.

단순히 자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명한 스타들이 착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착용하려는 모방심리가 있다. 이것을 이용한 판매전략을 경영학적으로는 '스타 마케팅'이라 부른다. 한류열풍의 진원지 격인 '겨울연가'의 배우들을 일본에서 '윤사미'라 하여 연속극 촬영지를 다녀오기가 하면 출연 당시의 집, 의상, 액세서리 등 이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NBA에서 잘 나가던 마이클 조던이 당시 나이키 광고에서 신고 뛰는 '에어 조던' 신발은 한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쇠성이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입는 옷들이나 모자, 신발,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클럽이 최고의 인기를 누린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기도, 명예도 세월을 비켜가지 못한다. 마릴린 문로도, 마이클 잭슨도, 마이클 조던도, 타이거 우즈의 허상도 점점 세상 무대에서 사라져간다. 목회도, 프로그램도, 설교도 성공한 자들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 어느 분은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어본다. 심지어 결혼결약까지... 그러나 역시 베르테르 효과의 허상이 불과하다.

우리가 진정 가슴에 품고 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빌2:5-11). 오직 그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모델이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대신 죽으신 그대로... 생명의 부활 그대로... 우리는 오직 그를 좇아 살아가는 것이다. 못이룬 사랑의 대명사인 베르테르의 허상에서 깨어나 생명의 주를 좇아가는 거룩한 행령이 되어야 한다.

중국 인구감소 = 국력 저하 + 문명 약화

WSJ, “한 자녀정책” 한계... 베이비붐 현상 절실” 보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노동인구)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60세 노동인구는 모두 9억1천954만 명으로 전년보다 244만 명이 줄었다. 이 같은 노동인구 규모는 총인구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60세를 넘어선 고령인구는 2억243만 명으로 총인구의 14.9%를 차지, 전년 14.3%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

이처럼 노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인구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을 뒷받침해온 '인구 보너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구인난과 노인 부양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따라서 '베이비 붐'만이 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도한다(Baby Boom or Economy Bust: Stern Warnings About China's Falling Fertility Rate).

지난주 열린 포럼에서 400명의 학생, 연구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구 교수는 "여러분이 60세가 되면 누가 여러분을 부양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여성 1,000명 당 출산율)은 1.18명으로 집계됐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심지어 출산율(0.7)이 더 낮았다.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더 하락하고 있다고 리양 지안장 베이징대 교수가 지적했다.

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인여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여 여성이란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층 미혼 여성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미혼 여성과는 달리 중국의 미혼 여성들은 자녀를 원치 않는다고 리양 교수는 설명했다.

"어떻게 보더라도 중국의 출산율 전망은 다른 국가들보다 암울



경제성장 뒷받침해온 '인구 보너스' 점점 사라져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대도시 출산율 0.7%불과

다른 반대자 및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 포럼에서 그는 때때로도 시급하게 중국의 출산율이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더 많은 출산 장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가가 중국의 경제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양은 인구 감소가 중국의 발전에 치명적인 것이라면, "중국의 국력이 저하되고 심지어 문명까지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양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권리를 주장하는 웹사이트 '인구와 미래'의 공동 설립자이다.

중국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16세-59세)는 2년 연속 감소해 노동력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 전망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년층(65세 이상) 인구는 9.7%로, 2012년의 9.4%에서 늘었다.

노동 인력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후양은 설명했다. 후양은 존스홉킨스에서 생물통

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같은 메시지가 전적으로 묵살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 자녀를 두 명까지 출산할 수 있게 허용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7월 '중국국립보건가족계획위원회'에서 가족 계획 사안을 담당하는 양 웬주양은 5월 말까지 불과 27만 6,000쌍의 부부가 둘째 출산을 신청해 그 중 24만 1,300쌍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과 연구자들은 그저럼 미미한 증가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인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은 정년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시사해 왔다.

2012년 중국의 부양비용(양로 보험가입자/퇴직자)은 3.09(근로자 3명이 퇴직자 1명 부양하는 꼴)로 집계돼 2003년의 2.9보다 상승했다.

한 듯 하다"면서 리양 교수는 앞으로 10~20년 내에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10년 전 일본의 고령화 추세보다 심지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고령화를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포럼에 참석한 다른 이들은 중국이 새로운 베이비붐을 장려해야 한다는 개념을 반박했다.

첸 지우 예일대 교수는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이 마오쩌둥의 의식주(출산 장려 정책)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것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양은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정상'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중국에 재앙적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Large directory of churches and ministries with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es, phone numbers, and service times. Includes sections for '서부(CA)교회안내', '남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etc.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에볼라 감염 미 의사 회복기원 잇달아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선교를 하다 미국인으로 세 번째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사 리 새크라(51·사진) 박사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년 가까이 라이베리아에서 헌신하고 있다. 아내 데비는 3일 "남편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다 지난달 29일 열이 나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격리 조치했다"며 "가족과 친구들이 남편의 회복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비는 "남편은 라이베리아의 병원들이 강제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 사람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새크라 박사는 현지 병원의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새크라 박사가 미국에서 출석했던 '삼일위례회교회'의 크리스토퍼 지글러 목사는 "한 달 전 그가 선교지로 다시 떠난다고 했을 때 교인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큰 용기를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더그는 "동생은 열 살 때부터 의료 선교사를 꿈꿨다"며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 사역하는 기독교인 의사로서의 좋은 본모습을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다.

새크라 박사는 미국 의사사역단체 SIM 소속으로 1995년 가족과 함께 라이베리아로 건너가 최근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했다. 8월 초 미국에 머물렀던 새크라 박사는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지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SIM의 요청을 받고 바로 선교지로 떠났다.

미 '골판지 간증' 유튜브서 인기

"당신의 간증을 골판지에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미국 텍사스주 힐사이드 크리스천 처치의 팀이 폴리츠 목사가 단상에 나와 이렇게 묻는 다. 이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며 골판지를 들어 보였다. 골판지에는 '도둑이자 완전히 망가졌던 자'라고 쓰여 있다. 골판지를 뒤집자 거기에는 '(아직도 망가지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적혀 있다.



그가 한쪽으로 비켜서자 다른 남성이 골판지를 들고 등장했다. 골판지에는 '돈과 포르노의 노예'라고 적혀 있다. 골판지 뒷면에는 '순종을 통해 자유를 얻음'이라고 쓰여 있다. 또 다른 남성은 앞면에 '하나님 등쳐 먹던 강도', 뒷면에 '하나님 손에 이끌린 기부자'라고 적힌 골판지를 보여줬다.

동영상 전문사이트 유튜브에 나오는 이 장면은 2008년 4월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담임목사와 교인들 수십 명이 예수로 인해 변화되기 전의 삶(앞면)과 변화된 후의 삶(뒷면)을 골판지에 적어 간증한 영상이다. 미국 노숙자들이 '음식이 필요하다' '일 자리를 달라' 등을 골판지에 적어 도움을 청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영상에서 골판지 행렬은 계속된다. 한 남성은 '남성 기독교인은 약해 보여서 싫어하던 자'가 '지금은 그 약한 자들 중 한 명'이 됐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필로폰 중독자'에서 '지금은 하나님께 중독됨'으로 변모됐다고 적었다.

유모차에 탄 아이와 함께 등장한 부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두 살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는데, '소망 능력 평안 안에서 다음 달에 세 살이 됨'이라고 밝혔다. '유죄판결 받은 흑아범'이 '성경공부 교사'가 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너무 힘들었던 삶'이 '5월에 아들 입양, 현재 임신 중'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이 이어졌다.

이 영상은 지난 6년간 200여만명이 시청했다. 영어권의 많은 교회가 각자의 버전으로 '골판지 간증'을 올리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서 '골판지 간증(Cardboard Testimonies)'을 영어로 검색하면 3만200여개의 영상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SNS 등을 통해 응용되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인 한상원씨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원망이 많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산다"며 골판지 간증의 형식을 빌려 댓글을 달았다. 김동욱씨는 "제가 꿈꾸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고, 류세종 목사는 이 동영상상을 공유하며 "여러분의 골판지 간증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평범한 영국주부, 기독교인 참수 위협

두 아들의 어머니자 한때 락 밴드 멤버였던 영국의 중년 여성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옛 ISIL)'에 가입한 뒤 기독교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데일리메일, 미러 등 영국 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평범한 주부가 IS대원이 된 사연에 영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샬리 존스(45)는 최근 트위터 계정 'UmmHussain101'에 "무디지만 좋은 칼로 모든 기독교인을 참수해 도시 철책에 걸어 놓을 것"이라며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겠다"고 썼다. 계정으로 사용한 '움 후세인'은 존스가 이슬람식 개명된 것이다. 존스는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를 걸치고 눈만 내놓은 모습으로 설정했다. 또 ak-47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도 올렸다. 그는 또 트위터에 코란 구절을 인용했고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존스는 언론이 집중을 시도하자 1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먹이를 줬다"고 남긴 뒤 트위터를 폐쇄했다. 존스의 오빠 패트릭은 "가족은 존스가 이슬람 극단주의단체로 개종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데일리메일에서 말했다.

영국 정보기관과 경찰은 한 달에 20여명의 영국인이 IS에 합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존스는 지난해 시리아로 이주한 뒤 IS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국 캔터의 북부 도시 체텀에서 10, 14세로 추정되는 아들 둘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다. 시리아로 건너가기 1~2년 전에는 소풍을 그림을 그려 팔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수입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존스는 1990년대 영국 여성 락 밴드 '크리치'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존스가 살던 마을의 한 이웃은 "남자가 그녀들긴 했지만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며 "빛을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는 시리아로 건너가 영국 출신 지하드(이슬람 성전) 전사인 주나이드 후세인(20)과 결혼했다. 둘은 인터넷상에서 사랑을 키웠다. 후세인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인 기자 2명을 참수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다. 후세인은 영국에서 유력 정치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반(反)테러에 대한 정부 연락망을 미시카는 등 반사회적 해킹을 일삼았다 2013년 시리아로 건너갔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안전한 죽음(눅23:46)찬147장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주님의 절규는 구속의 완전성취를 선포하신 입니(눅23:46). 이로써 모든 구약 예언과 교훈들과 사건들이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믿고 내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는 그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신자 각자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였습니다. 이 길을 향해 나가는 자는 살아나고 새로워지도록 돼있습니다(히

10:20). 그리고 백부장과 주변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을 들었음이 나타났고 나아가 멀리서 여러 남자와 여자들이 이를 목격함으로 죽음의 증인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시신을 장사한 요셉은 죽음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진실과 사실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역시, 사실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한 죽음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움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화 성령의 조명(눅24:32)찬177장

예수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능력있는 생활의 근거입니다. 즉 이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다. 이 방법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했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풀어주는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눈이 뜨여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눅24:32). 부활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강력을 소유한 우리는 어디서나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수 임하신 말씀(눅3:1-14)찬173장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는 준비됐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예언자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해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찾아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빈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2). 들

째, 고정관념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 고정관념이 위험합니다(8). 과거의 경력, 현재의 호조건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 아래 설 때 우리는 자아의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 드러나는 이 시대를 바로 살기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목 임하신 그 나라(눅5:27-39)찬502장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하신 하나님나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레위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신 후 그 잔치에 초대하신 주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잔치음식을 먹는 것과 금식보다 잔치에 더 치중하는 점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푸신 4가지 비유(의사, 금식, 새옷, 새포도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자신은 그 나라 왕 되심을 주장하시며 새 시대에 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속세를 떠난 곳에 있지 않고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장소에 임하셨습니다. 그 왕은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친히 일하셨습니다(30-31). 어떤 현령이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기만하면 그 나라의 은혜는 임합니다. 셋째, 새 시대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시대의 가운을 벗고 복음 시대의 진리 속에서 온전해지고 자유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38-39).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금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눅16:1-15)찬221장

본문은 신자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충성해야 합니다. 39절 복있는 자는 주인을 항상 기다려 깨어 설기는 종이요 합니다. 혼인집에 늦게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는 종은 최고의 대접으로서 주인이 마련한 심금을 누릅니다. 주시는 상급을 구하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인은 주님, 나는 그의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steward)는 소유권이 없고 오

직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매니저에 불과합니다. 시간, 물질, 건강 등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기위해 항상 마지막 날 주인에게 보고할 일을 생각하는 종말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긴장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며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섬기게 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떨어지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토 천국의 기쁨(눅15:1-10)찬328장

본문에서 보인 천국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바리새인들(1-2)과 달리 천국의 기쁨을 즐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9). 이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즐겼으나 경건의 내용인 복음의 맛과 전통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과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으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잃어버린 양인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찾은바 되어 천국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둘째, 주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찾고 잃은 자를 찾아내는 전도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드려 날마다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500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초고령화예배: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유년: 유년: 오전 10:00</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p>	<p>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타코마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한)</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템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주역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공공의 적” 이슬람국가(IS) 확대 저지!

세계언론, “급진이슬람주의 확산 제동에 전 세계가 나서야” 보도

이슬람국가(IS)의 거침없는 진격에 국제공동이 걸리고 있다. IS는 이번 여름,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했다. 바로 이러한 성공은 유대감이 긴밀한 핵심 그룹이 지배하는 매우 체계적인 조직으로부터 나왔다. 그 핵심 그룹은 알카에다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은 한 이슬람주의 광신도가 이끈다. '자동차 폭탄'처럼 잘 알려진 테러 행위와 전통적인 군사 전술을 함께 사용하는 IS는 현지 부족들과 연계와 사담 후세인의 군대에서 활동했던 전직 장군들의 기술로 전력을 지탱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은 효과적인 신병 모집 전략이다. 점령 지역의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있다. IS는 지역 상인들을 착취해 부를 쌓고, 점령지역에 새로운 칼리프 통치 국가를 만든다고 말하며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IS는 지지자들에게 영토 확장은 전 세계 수니파 이

슬람교도들의 실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효과적으로 설득한다. IS는 서로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핵심 그룹이 이끈다. 충성심이 의심되는 자는 이미 제거됐다.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강력한 테러단체가 탄생했다.

따라서 미국 기자들을 두 차례에 걸쳐 참수하는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공연하게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증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안팎으로 IS를 강력하게 진압해야한다는 요구를 직면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IS의 전략적 요충지역에만 공습을 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동조를 통해 IS를 시리아, 이라크 북부에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IS는 지구촌 언론의 공통된 주제였다. 그만큼 IS는 알라의 이름으로 중동 지역에 엄청난 혼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미국 스스로도 내부의 부정적 여론에 휩싸여 있어 얼마나 강도 높고 설득력 있는 외교적 노력이 전개될지 미지수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도 IS를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과 일정한 수준의 군사협력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결론으로, IS는 알카에다처럼 산악 지역이나 지하에 숨어 산발적인 테러전을

(17면에서 계속)

인종학살을 당하는 야지디인자들
IS는 이라크에서 야지디인자들을 인종학살에 가까운 살인극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야지디인자들을 다 죽여야할 사탄으로 증오한다. 이미 수천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한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무서운 인종 살인극을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있다.

야지디란 종교는?
이 종파의 신자들은 주로 이라크의 모술, 터키의 디야르바키르, 시리아의 알레포, 독립국가연합의 아르메니아와 카프카스, 이란의 일부지역, 독일(약6만 명)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 종파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유대교,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적인 요소가 혼합된 종교이다. 야지디교도 자신들은 우마이야조의 칼리프 야지드 1세의 종족 자들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인간들과는 아주 다르게 창조되었으며 야담의 후손들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들을 주변 사람들과 엄격히 격리시켜놓고 있다. 신도의 수는 10만이 채 안 되는 듯하며, 또 흩어져서 살고 있지 만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로 셰이크를, 세속의 지도자로 에미르를 세우고 매우 조직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야지디에서 가장 신성한 인물은 말라크 타우스('공작재 천사')이다. 그는 공작재의 모습으로 숭배되며 6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나 일곱 천사는 모두 최고신에게 속종한다. 최고신은 자신이 우주를 창조한 이래 우주에 대한 직접적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 산자크(sanjaq)라고 불리는 일곱 천사는 일곱 개의 청동이나 철 공작의 형태로 야지디교도들에게 숭배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약 320kg에 이른다.

야지디는 이원론에 반대한다. 그들은 악의 존재를 부인하므로 죄·악마·지옥도 부인한다. 신의 법을 어긴 죄는 환생에 의해 속죄할 수 있다. 환생을 통해 영혼은 점차 정화될 수 있다. 야지디는 악마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만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과거 자신의 자리였던 천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신화 때문에 야지디는 악마 숭배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슬림들은 이들을 무서운 이단으로 정죄, 다 죽여도 좋다는 사실을 가졌다는 것이다.

종교의 본산지 이란(페르시아)
야지디 사대를 보면서 한국교회에는 종교는 대부분 인도에서 많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이란(페르시아)도 많은 종교를 만든 지역이다. 기독교에서는 잘 모르는 사배안 신자(세례요한)의 세례를 고집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다(약1만명으로 추산) 어거스틴이 열심히 믿었던 마니교도 이란의 조로아스트교 파생이다. 일본은 태양신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페르시아 태양신 숭배가 중앙아시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10년 전 일본학자가 밝혔다. 그의 이 주장은 일본이 결코 태양신의 원조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슬람의 일신론은 이란의 일신론에서 왔다”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도 이란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100년전 서구학자들이 주장했다. 이것을 근거로 일본인 이슬람 연구자 후지모토 카츠미는 저서 '무함마드와: 유대인과 이야기'(구신학, 마루타 공역, 전호진 감수 참조)에서 이슬람의 극단적 일신론 사상은 “막연한 일신론 사상”에서 왔다고 결론지었다(동서 35-38 p.). 이슬람 과격세력들이 서구와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죽이면서까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은 이슬람 세계와 전투의 세계(비이슬람 세계)로 구분하는 흑백논리다. 비이슬람 세계를 정복하려는 공격적 이원론은 이란의 이원론 종교의 영향으로 본다.

오바마 행보 분주...NATO 정상회의 통해 지구촌 집단안보기능 강화 모색 이라크 공습 이어 시리아 IS 본거지 공습 구상 공개 후 동맹국 규합 나서

적과 거의 같은 크기의 실질적인 국가를 세웠다. 따라서 3일, 공개된 55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자와히리는 인도 아대륙(the Indian subcontinent)지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IS 최고 지도자와 그가 올 6월 선포한 '이슬람 국가' 건국을 비난했다.

그동안 IS는 위협적일 정도로 세력을 불러 성공을 거두면서 알카에다를 능가해 왔다. IS는 전 세계 이슬람 성전주의자 운동의 지도 조직이 되기 위해 현존하는 어느 아랍권 과격 단체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해왔다.

전 세계 지하드의 진영자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알카에다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와히리의 메시지는 대부분 알카에다의 강점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력의 중심점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는 알카에다 지휘관과 전사들에게 IS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요하면서 알카에다를 상대로 공습을 펼쳤다.

영상에서 자와히리는 “이 지역에서 억압당하는 이슬람교도”를 지원하는 것이 지부 신설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를 포함, 남아시

아에 “영국 점령자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국경선을 허물기 위해 이 지부가 설립됐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인도 아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한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앞날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카에다 산하 조직들이 큰 성공을 거둔 전적이 없고, 이 지역이 중동만큼 종교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 역시 분주하다.

먼저 IS가 점령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 지역들에 대한 공습이 확대되고 있다. 미군은 이번 주에만, 이라크 서부 하디타섬 인근 지역에서 수니파 반군세력인 IS를 겨냥해 네 차례 공습을 단행했다. 미군 당국은 이라크 정부가 하디타섬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공습은 IS를 공격하려는 반군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루지야를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하디타섬이 폭파되거나 IS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전략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만큼 IS를 격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이라크 북부 아르빌 인근에서도 IS 대원들과 무기고를 겨냥해 6일 공

습을 단행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국가를 소탕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을 모색하고자, 유럽 순방을 마쳤다. 다시 말해서,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기능을 강화시키려는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호한 이라크, 시리아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등 '두개의 전선'에서 승리하려면 전통적 우군인 유럽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이끄는 관전 포인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발호한 IS 세력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견고한 국제연대의 틀을 만드느냐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공습에 이어 시리아의 IS 본거지를 공습한다는 구상을 공개하고 동맹국 규합에 나섰다 유럽 각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IS 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각국 정상을 직접 만나 국제적 연합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맹주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

감행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 알라의 이름과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여러 지하디스트 단체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을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지하디스트 운동의 주도권을 잡는데 필요한 지원과 호응을 얻기 위해 알카에다가 견제 수단으로 인도 지부 창설을 공언했지만, 그다지 신통해 보이지 않는다. 중동에서 IS의 준동으로 지원과 호응을 뺏기자, 동남 아시아에서 다시 알카에다가 얻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라크에서 지상군 철군으로 다시는 관련하고 싶지 않은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북부 그리고 터키까지 이르는 지역이 IS의 극단적 이슬람주의로 또 다른 중동의 화약고라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의 중보기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미 이슬람극단주의가 알카에다를 통해 현대 형성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시점에서, 더욱 과격하고 극단적인 IS까지 확산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시기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500호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5</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02)2-490-70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광운동 340-1(131-231)</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순례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곡광역시 북부 준남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주말) VIA DEI QUINTIL 32-30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422-2341-3, 사택: (02)389-2235 서울시 강릉구 명동3동 330-5, (134-830)</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4,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6)</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02)2-1008 서울시 강북구 화동3동 172-1(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1612-824)</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 서울시 중로구 남사동 137번지</p>	<p>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팩스: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182-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광운동 1721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786-6579, 사택: (02)2-32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43)275-8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용곡리 서흥동 259-12</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강남 향원시 삼성구 용평동 415 www.yangokg.org</p>	<p>양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순례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6-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8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용곡리 서흥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